

통합치료연구

제8권 제2호

한국통합치료학회

한국통합치료학회 임원진

회 장 : 박은선(명지대학교)

부 회 장 : 홍혜영(명지대학교)

총 무 : 최명선(명지대학교)

편 집 위 원 회 : 선우현(명지대학교) 김은연(명지대학교) 최예린(명지대학교)
손보영(선문대학교) 이상진(평택대학교) 박정환(제주대학교)
박춘성(상지영서대학교) 서근원(대구카톨릭대학교)
Dr. Felicity Baker(The University of Melbourne)

국제교류위원회 : 권수진(Maryville University) 심혜원(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윤 리 위 원 회 : 이은경(명지대학교) 송민애(연세대학교)

홍 보 위 원 회 : 유경훈(송실대학교) 정은정(명지대학교) 최정현(서울문화예술대학교)

학 술 위 원 회 : 문소영(명지대학교) 강순미(백석예술대학교)

학제 간 연구위원회 : 최광현(한세대학교) 양심영(송의여자대학교) 조민지(평택대학교)

간 사 : 강윤희 정혜전

감 사 : 노남숙(명지대학교)

〈차 례〉

-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통제가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사회불안의 매개효과—
권혜민 · 홍혜영5
- 자기초점적 주의와 우울 간의 관계
—심리적 수용 및 반추의 매개효과—
조민희 · 홍혜영35
- 용서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백서희 · 홍혜영61

<별첨 1> 통합치료연구 연구 윤리 관련 규정 / 86

<별첨 2> 투고규정 / 89

<별첨 3> 논문 작성 요령 / 90

<별첨 4> 한국통합치료학회 회칙 / 97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통제가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사회불안의 매개효과 -

권혜민* · 홍혜영**

휴먼티에스에스(휴먼힐링센터) · 명지대학교

본 연구는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통제와 SNS중독 경향성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 조절전략과 사회불안의 매개효과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도, 경남 남녀 중학생 346명을 대상으로 설문하고 구조모형 4개를 비교분석하였다. 구조모형 1,2는 직접경로를 포함, 구조모형 3,4는 직접경로 제외한 간접경로 간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설정한 모형이다. 연구 결과는 첫째, <구조모형 1>에서 부의 심리적통제가 SNS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나고, 사회불안은 매개효과가 없었다. 둘째, <구조모형2>에서 모의 심리적통제는 SNS중독 경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매개효과는 없었다. 셋째, 간접경로만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구조모형3>, <구조모형4>를 살펴보면 부·모의 심리적통제와 SNS중독 경향성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완전매개효과를 보였으며, 더불어 부·모의 심리적통제를 많이 받을수록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이는 사회불안을 야기하여 SNS중독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중매개효과 모두 완전 매개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심리적통제가 SNS중독 경향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보다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사회불안을 통한 간접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함의한다.

핵심어: 부·모 심리적통제, SNS중독 경향성,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사회불안

* 본 연구는 권혜민(2016)의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통제가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사회불안의 매개효과”를 수정 및 요약한 논문임.

** 교신저자: 홍혜영(hyhong@mju.ac.kr)

■ 게재 신청일: 2017년 1월 14일 ■ 최종 수정일: 2017년 2월 08일 ■ 게재 확정일: 2017년 2월 11일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이론적 배경

2010년 국내 스마트폰 보급 이래 사용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SNS로서 국내에서만 4,000만명이 가입한 카카오톡을 선두로 3,000만명이 넘는 카카오톡 스토리, 1,000만명이 넘는 페이스북의 사용이 두드러지고 있다(이상호, 2013). SNS 사용의 증가는 자연스레 과몰입과 중독 현상을 초래하였고 중독의 심각성 또한 커지고 있다. 특히 2013년에 실시한 스마트폰 중독 실태조사에서는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에 속한 청소년이 성인보다 약 2.9배 많게 나타났고 청소년이 SNS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 그 중독의 정도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중 중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서창민 외, 2012)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SNS에 쉽게 몰입되는 청소년들은 환경적 요인 중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높은 연관성이 있다고 밝혀진 바 있다(송소원, 장석진, 조민아, 2012; 조한익 외, 2011; 한수진, 2015).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인 양 과도하게 보호하고, 부모의 의도대로 자녀를 양육하고자 심리적으로 통제하는 경향이 높은(Barver, 2002) 현 사회현상을 고려해볼 때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통제로 인한 SNS중독 경향성과의 관계는 의미 깊은 연구가 되었다. 또한 급변하는 오늘날 자녀의 발달에 있어서 아버지의 양육 및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력은 다른 영향력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보여 지므로(Rohner & Veneziano, 2001)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심리적통제와 어머니의 심리적통제가 청소년 SNS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검증하였다.

앞서 살펴본 환경적 요인 중 부·모의 심리적통제 이외에도 개인의 정서와 심리적인 요인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개인이 살아가며 마주하는 일련의 경험에서 유발되는 결과물이 정서라고 한다면 이를 상황에 맞도록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문제 상황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기도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통제와 SNS중독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남정희(2008)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부적응적 정서가 인터넷 중독과 정적상관을 나타내며 인터넷 중독을 선행하는 주요요인임이 확인되었다. 그 중, 본 연구에서는 SNS중독 문제에서 개인의 정서를 지각하고 의미 있게 다루는 인지적 접근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인지적 정서조절전략(Garnefski & Kraaij 2007)을 선택하여 살폈는데, 특히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하위 요인 중 SNS 중독경향성에 정적상관을 보이는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선택하여 부·모의 심리적통제가 SNS중독에 영향을 미칠 때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이 매개하는지에 대한 관계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최근 SNS중독 연구에서 사회불안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김송아(2008)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심리적통제가 높을수록 자녀의 사회불안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한 바 있고, SNS중독과 사회불안을 주제로 한 유현숙(2013), 이선자(2013)의 연구에서 역시 사회불안이 SNS 중독 경향성에 정적상관이 있음을 밝혔다. 이를 종합해 볼 때, 김정민, 최은서(2010)의 연구에서 부모-자녀의 부정적 관계가 청소년기에 불안을 높이고 현실에서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청소년들이 불안한 상황을 회피하고자 쉽게 인터넷에 중독 될 수 있다고 밝혀진 바 있듯, 부·모 각각 심리적통제가 SNS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불안의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론되므로 이를 검증하였다.

한편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사회불안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Garnefski et al.(2002)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불안의 32.7%가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으로 설명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경화, 홍혜영(2011)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적응적 인지전략의 하위영역인 긍정적 재평가, 긍정적 초점 변경은 사회불안과 유의미한 부적상관, 부적응적 인지전략의 하위요인인 타인비난, 자기반추, 파국화는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를 근거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할수록 사회불안이 높아진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 각각의 심리적통제가 SNS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사회불안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독립 변수를 아버지의 심리적통제, 종속변수를 SNS중독으로 설정하여 직접경로를 포함한 연구모형 1, 어머니의 심리적통제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SNS중독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직접경로를 포함한 연구모형 2, 독립변수인 부·모의 심리적통제에서 종속변수인 SNS중독경향성의 직접경로를 제외하였을 때 간접경로간의 매개효과의 정확한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 3, 4를 제시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모형을 4개로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실제로 부·모의 심리적통제가 SNS중독경향성, 혹은 유사매체에 미치는 영향 즉, 직접경로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매개변인인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나 사회불안을 거치지 않고도 부·모의 심리적통제만으로 SNS중독 경향성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때문에 강력한 직접경로

로 인해 두 개의 매개변인의 영향력이 축소될 수 있음을 예측하는 바 연구모형 3, 4에서는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사회불안이라는 두 개의 매개변인을 거치는 간접경로의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SNS중독과 관련하여 환경적 변인인 부와 모의 심리적통제와, 개인 심리적 변인인 정서조절전략과 사회불안의 연관성을 처음으로 각각 살펴보았다는 점에 의의를 두며, 이를 통해 부·모의 심리적통제가 SNS중독에 미치는 영향과 그 해결을 위한 부모교육, SNS중독예방 프로그램을 개발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체계적인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통제가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사회불안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설정한 연구가설과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부·모의 심리적통제, SNS중독경향성,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 조절전략, 사회불안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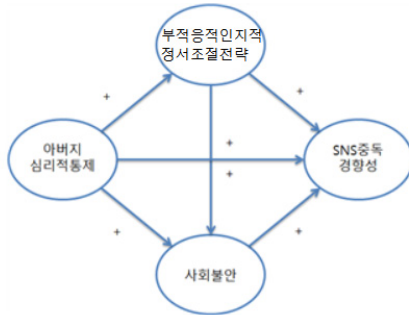
가설 2. 부·모의 심리적통제는 SNS중독경향성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부·모의 심리적통제와 SNS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사회불안은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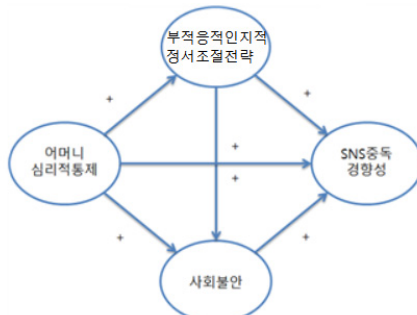
3-1. 부·모의 심리적통제와 SNS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3-2. 부·모의 심리적통제와 SNS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사회불안은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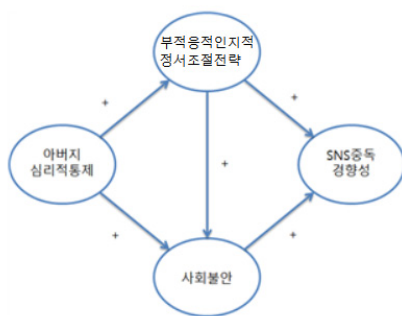
가설 4. 부·모의 심리적통제와 SNS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사회불안은 이중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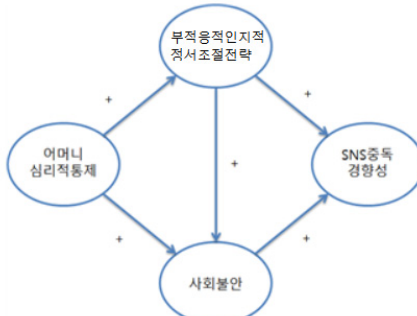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1



〈그림 2〉 연구 모형2



〈그림 3〉 연구 모형3



〈그림 4〉 연구 모형4

II. 이론적 배경

1. SNS중독경향성

최근 중독의 개념이 물질 뿐만 아니라 행위중독(과정중독)의 개념으로까지 확장되면서 인터넷 중독, 성 중독, 도박중독, 강박적 구매, 음식중독 등으로까지 중독의 연구 분야가 포함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와 같은 맥락으로 행위중독 중의 하나인 SNS 중독이 최근 연구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SNS 사용의 역사가 그리 길지 않고 그 부작용에 대한 인식 역시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서경현, 조상현, 2013)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인터넷과 같은 매체 중독의 선행연구들을 함께 탐색하고자 한다.

Griffiths et. al.(1999)은 중독의 정의에 ‘개인에게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돌출행동’이라는 기준을 추가하여 인터넷 중독 경향성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이러한 정의에는 활동 참여시 기분의 변화,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싶은 욕구와 내성 증가,

활동의 중단 이후 금단 증후와 재발하려는 심리적 경향이 포함된다. 이러한 심리적 변화를 포함하여 본 연구에서도 ‘SNS 중독경향성’으로 용어를 통일하도록 하겠다. 즉 SNS 중독경향성이란, SNS 과다사용으로 인하여 금단과 내성을 갖고 스트레스와 우울증, 낮은 집중력, 강박 등의 정신적 피로와 신체적 질환을 갖게 되어 개인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오윤경, 2012).

2. 부·모의 심리적통제

가. 부·모의 심리적통제와 SNS중독 경향성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은 자녀는 가상의 공간을 도피처로 이용하여 심리적 만족감, 정서적 지지를 충족하게 되고 중독가능성을 높이며(윤영민, 2000; 서문영, 전영자, 2006) 나용선(2013)의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부모의 통제를 행동적 통제, 심리적통제로 나눠 구분하지 않음으로 연구 결과들이 일관되지 못하다. 그 예로 부모의 통제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 정도가 높아진다는 윤영민(2000), 김혜원(2001)의 연구 결과와 다르게 박영순(2002)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이용에 관한 부모의 통제가 낮거나 통제 정도가 일관성 없이 지나칠 경우 오히려 인터넷 중독성향이 높아진다는 상반된 결과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상이한 결과 도출을 예방하고자 부모의 통제적인 양육 중,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 된 ‘심리적통제’가 SNS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정윤주(2004)의 연구에서는 자녀에게 부모가 심리적통제를 높게 사용할수록 컴퓨터 몰입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태까지는 부모를 단일변인으로 보고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통제가 각각 SNS중독에 미치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SNS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통제의 차이를 살피고, SNS중독 예방과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제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3.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가. 부·모의 심리적통제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란 정서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방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이지영, 2010). Zeman과 그의 동료들은(1998) 이 과정에서 부정적 정서를 바꾸거나 혹은 긍정적 정서를 유지하려고 사용하는 계획된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누구나 인지적으로 정서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개인마다 자신이 경험한 상황을 인지하고 그에 따른 정서를 조절하는 방식은 다르다(Garnefski, 2007). 인지정서조절 전략은 9가지 하위요인으로 나누어지며 5가지의 적응적인 전략과 4가지의 부적응적 전략 두 차원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하위요인 중 SNS중독 경향성에 정적상관을 미칠 것이라 예측 되는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선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와 자녀 관계는 대인관계의 최초의 모델이며 특히나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를 연결하는 과도기로 발달 단계상 급격한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므로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독립과 또래관계 확장은 매우 중요하다. 이들은 더욱 다양한 적응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Kuppens et al., 2013) 정서적 독립의 욕구가 증가하는 청소년 시기에 부모가 제공하는 심리적통제는 부정적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어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통제와 자녀의 행동 관계를 매개하는 요인에 대한 탐색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최근 들어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늘어나 아버지가 자녀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다. 아버지의 심리적통제와 자녀의 정서조절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김현아(2015)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영향력을 통제된 뒤에도 아버지가 심리적통제를 많이 보이고 아버지-자녀 애착이 낮을수록 자녀가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많이 보이며 공격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의 결과는 자녀에게 미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각각 중요하므로 둘을 나누어 살펴보아야 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부·모의 심리적통제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처음으로 그 관계성을 밝힐 수 있는 것에 의의를 둔다.

나.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SNS중독

청소년의 경우 성인에 비해 신규 매체를 더 적극적이고 빠르게 받아들여 기존 매체를 대체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청소년이 스마트폰 중독에 취약하고(김동일 2012), 이러한 청소년들은 불안, 회피, 우울, 스트레스 등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때 어른보다 더욱 SNS에 몰입된다. 이러한 청소년이 본인의 스트레스와 그때의 정서를 인지하

고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는지에 대한 정서조절전략은 SNS 중독경향성과 유의미상관이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인지적 정서조절 및 대인관계 성향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김희정(2012)의 연구에서는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은 인터넷 중독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 위와같은 주장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이와 같은 기존의 연구는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이 SNS중독에 정적 상관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행동적 정서조절전략과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구분하지 않아 모호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거나 정서조절, 인터넷 중독과 같은 비슷한 개념의 연구만이 진행된 실정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으로 한정 짓고 그 하위변인에서는 SNS중독과 정적 상관을 예측하는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을 살피고자 한다.

4. 사회불안

가. 부·모의 심리적통제와 사회불안

부모와 자녀는 처음 관계 맺는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 부모로부터의 올바른 양육은 자녀의 발달과 적응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최근에는 총체적 양육태도 보다는 세분화하여 측정된 양육 유형 및 양육 차원별로 접근하는 방법이 늘어나고 있으므로(Davidov & Grusec, 2006) 본 연구에서 역시 부모의 통제 중 심리적통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안명희(2010)의 연구에서 어머니로부터 정서적, 언어적 침해 행동 등 심리적으로 통제를 많이 받은 자녀일수록 자신이 다른 사람의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어렵고 자신의 기대감을 기준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느끼는 부적절감을 높게 지각했다. 또한 무시 및 수치심 유발과 같은 부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사회불안과 관계가 있다는 김송아(2009)의 연구를 토대로 부·모의 심리적통제가 사회불안에 정적 상관을 미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즉, 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는 자녀의 판단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의 발달을 저해하므로 수행에 대한, 그리고 타인의 평가를 의미하는 대인에 대한 불안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해본다.

나. 사회불안과 SNS중독

사회적으로 접촉하고 싶은 욕구가 있음에도 사회불안을 겪는 개인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예상되는 대인관계의 접촉을 피하게 된다(Turner, Beidel, Dancu, & Keys, 1986; Whisman, Sheldon, & Goering, 2000). 하지만 면대면 상황의 부담스러움을 수반한 실제 대인관계의 대체물로서 인터넷의 등장으로 조금 더 쉽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손안에 인터넷이라는 맥락으로 스마트폰의 보급과 SNS사용은 오프라인 만남에 비해 사회적 단서들이 감소하고 상호작용에 대해 더 큰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불안한 개인들은 이를 더욱 선호하는 것이라고 Erwin et al.(2004)은 밝힌 바 있다. 또한 사람들은 불안을 느낄 때 자신이 느끼는 불안의 감정을 외면하거나 회피하려는 시도를 하는데 이러한 회피 행위 역시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고, 스마트폰 중독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밝힌 박용민(2011), 엄민경(2013), 이선자(2013)의 연구에서는 사회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SNS 중독 경향성이 높아진다고 공통되게 주장하였다. 또한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한상후(2008)의 연구에서 역시 높은 불안감은 휴대폰에 중독될 경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사회불안

불안장애에 대한 인지적 변인들의 영향의 중요성이 대두되며(Heimberg, 1994) 특히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청소년 불안의 32.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arnefski et al., 2002). 한편 국내연구 중 이서정(2006)의 연구에 따르면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중 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의 역할이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적응적 인지전략의 하위영역은 긍정적 재평가, 긍정적 초점변경은 사회불안과 유의미한 부적상관, 부적응적 인지전략의 하위요인인 타인비난, 자기비난, 반추, 파국화는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고 밝힌 바 있다(홍경화, 홍혜영, 2011).

이렇듯,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사회불안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고, 어느 전략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회불안이 낮아질 수도 높아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능력과 사회불안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의 심리적통제가 SNS중독 경향성에 영향을 미칠 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검증하는 것이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를 위해 서울, 경기도, 경상남도 지역 7개 중학교의 남녀 중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연구하였다. 430부의 설문지 중 총 415부를 회수, 전혀 응답이 없거나, 일렬로 응답하는 등 불성실한 69부를 제외한 346부의 설문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 212명(61.3%), 여자 134명(38.7%), 학년별로는 1학년 157명(45.4%), 2학년 110명(31.8%), 3학년 79명(22.8%)로 나타났다. 학교 소재지별로는 경기도 186명(53.8%), 서울 105명(30.3%), 경상남도 55명(15.9%)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가. 부·모의 심리적통제 척도

부·모의 심리적통제를 측정하기 위하여 Barber(1996)가 개발하고, 정운주(2004), 전숙영(2007)이 번안한 심리적통제 척도(Psychological Control Scale- Youth Self-Report : PCS-YSR)를 사용하였다. Likert 4점 척도로서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로 구성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 또는 모의 자녀에 대한 심리적통제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부 심리적통제의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는 .88, 모 심리적통제의 내적 합치도는 .87로 나타났다.

나. SNS중독 경향성 척도

서경현과 조성현(2013)은 오윤경(2012)의 질문지에 포함된 11문항에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추출한 9문항을 추가하여 SNS중독 경향성을 측정하였다. 문항은 총 20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SNS 집착 및 금단증상, SNS 과잉소통과 몰입, SNS를 위한 과도한 시간통제 등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

서 4점(매우 그렇다)까지 Likert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SNS 중독 경향성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93으로 나타났다.

다.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척도

중학생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측정하기 위해 김소희(2004)가 번안하고 수정한 Ganefski et al(2001)의 자기보고형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척도(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총 36개 문항 중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을 살펴볼 수 있는 16개의 문항만을 선정하여 설문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85로 나타났다.

라. 청소년용 사회불안 척도

본 연구에서는 오경자와 양윤란(2003a, 2003b)의 연구에서 번역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8문항이며 5점 Likert식 척도로서 가능한 점수 범위는 18~9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불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94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전반적인 기술통계량을 분석하기 위하여 SPSS 21.0을 사용하고 연구에 사용된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부·모의 심리적통제, SNS중독 경향성,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사회불안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AMO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고,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부·모의 심리적통제와 SNS중독 경향성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사회불안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AMOS를 이용하여 구조방정식(SEM :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이용하여 4개의 검증모형을 분석 후 변인 간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Phantom Variable을 사용하여 간접경로들에 대한 개별매개효과와 이중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IV. 연구결과

1. 각 변인간의 상관분석 및 기술통계

독립변인인 아버지 심리적통제는 종속변인인 SNS중독경향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매개변인인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사회불안과도 각각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독립변인인 어머니 심리적통제 역시 각 종속변수 및 매개변수에 동일한 결과로 나타났다. SNS중독경향성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사회불안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매개변인인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사회불안끼리도 역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 모두 기준치(왜도<2, 첨도<7)를 넘지 않아 정규성의 기준 조건이 충족되었다.

〈표 1〉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량

	아버지 심리적통제	어머니 심리적통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 조절전략	사회불안	SNS중독 경향성
아버지 심리적통제	1				
어머니 심리적통제	.85**	1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33**	.36**	1		
사회불안	.39**	.39**	.46**	1	
SNS중독경향성	.48**	.52**	.31**	.31**	1
평균(Mean)	1.72	1.76	2.52	1.91	1.71
표준편차(S.D)	.48	.49	.58	.77	.52
왜도(skewness)	.85	.84	.16	1.22	.66
첨도(kurtosis)	.92	.93	.46	1.53	.79

※ N=346

※ * $p < .05$, ** $p < .01$

2. 부·모의 심리적통제가 SNS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사회불안의 매개효과 검증

가. 측정모형의 검증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모형1의 적합도 지수는 $\chi^2 = 88.488(p < .001)$, $df = 48$,

CFI=.988, TLI=.984, RMSEA=.049, 측정모형2는 $x^2=87.378(p<.001)$, $df=48$, CFI=.989, TLI=.985, RMSEA=.049, 측정모형3은 $x^2=184.675(p<.001)$, $df=49$, CFI=.960, TLI=.947, RMSEA=.060, 측정모형4는 적합도 지수는 $x^2=195.596(p<.001)$, $df=49$, CFI=.958, TLI=.944, RMSEA=.063으로 모형 채택을 위한 적합도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고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형	x^2	p	df	CFI	TLI	RMSEA (90% CI)
측정모형1	88.488	.000	48	.988	.984	.049 (.05~.08)
측정모형2	87.378	.000	48	.989	.985	.049 (.05~.08)
측정모형3	184.675	.000	49	.960	.947	.060 (.05~.08)
측정모형4	195.596	.000	49	.958	.944	.063 (.05~.08)

나. 구조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 연구와 이론들에 근거하여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 각각의 심리적통제가 SNS중독으로 가는 직접 경로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사회불안을 통해서 가는 부분매개모형, 그리고 부·모의 심리적통제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사회불안을 거쳐 SNS중독으로 가는 이중매개모형을 구조모형1과 2의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부·모 각각의 심리적통제가 SNS중독으로 가는 직접경로를 제외한 나머지 경로들을 가지고 간접경로들만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모형3과 4를 설정하고 검증하여 총 4개의 구조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조모형1은 수용 가능한 적합도를 보이고 있으며($x^2=88.488$, $df=48$, $p=.000$, TLI=.984, RMSEA=.049), 분석결과, 아버지 심리적통제는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 .47($p<.001$), SNS중독 .51($p<.001$), 사회불안 .48($p<.001$)으로 각각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적응적 정서 조절전략은 사회불안 .54($p<.001$), SNS중독 .12($p<.001$)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을 보였다. 그러나 사회불안과 SNS중독의 경로는 .03($P>.05$)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구조모형2는 기존 구조모형1의 경로에서 아버지의 심리적통제를 어머니 심리적통제로 대신하여 분석한 모형으로, 어머니 심리적통

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사회불안, SNS중독 간의 구조모형을 제시하였다. 구조모형2 역시 수용 가능한 적합도를 보이고 있으며, 자료와 부합하는 모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chi^2 = 87.378$, $df = 48$, $p = .000$, $TLI = .985$, $RMSEA = .049$). 분석결과, 어머니 심리적통제는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 $.50(p < .001)$, SNS중독 $.55(p < .001)$, 사회불안 $.45(p < .001)$ 으로 각각 유의미한 정적 경로를 보였다. 또한 부정적 정서 조절전략은 사회불안 $.54(p < .001)$, SNS중독 $.11(p < .001)$ 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구조모형1과 마찬가지로 사회불안과 SNS중독의 경로는 $.03(P > .05)$ 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3>, <표 4>와 같고, 구조모형 1,2는 <그림 5>, <그림 6>과 같다.

<표 3> 구조모형1 경로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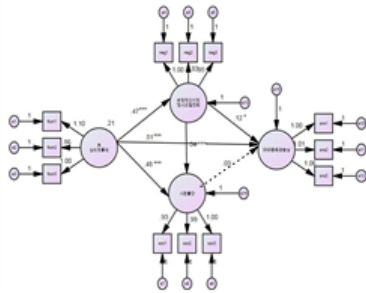
경로	B	β	SE	t
아버지 심리적통제 → SNS중독	.47	.51	.07	7.73***
아버지 심리적통제 →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36	.47	.08	6.07***
아버지 심리적통제 → 사회불안	.28	.48	.10	5.08***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 사회불안	.41	.54	.07	7.53***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 SNS중독	.15	.12	.05	2.47*
사회불안 → SNS중독	.04	.03	.04	.70

※ * $p < .05$,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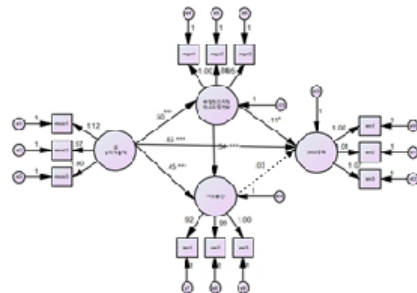
<표 4> 구조모형2 경로계수

경로	B	β	SE	t
어머니 심리적통제 → SNS중독	.50	.55	.07	8.45***
어머니 심리적통제 →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37	.50	.08	6.47***
어머니 심리적통제 → 사회불안	.26	.45	.10	4.68***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 사회불안	.41	.54	.07	7.52***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 SNS중독	.13	.11	.05	2.16*
사회불안 → SNS중독	.05	.03	.04	.84

※ * $p < .05$, ** $p < .01$



<그림 5> 구조모형1



<그림 6> 구조모형2

주. 숫자는 표준화 계수

※ * $p < .05$, ** $p < .01$, *** $p < .001$

구조모형3은 구조모형1의 직접경로인 독립변수에서 종속변수로 가는 경로(아버지 심리적통제 → SNS중독)가 삭제된 모형으로, 직접경로를 포함하였을 때 매개하지 않았던 간접경로간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설정한 모형이다. 구조모형3은 수용 가능한 적합도로 자료와 부합하는 모형인 것으로 확인되었고($\chi^2 = 149.004$, $df = 49$, $p = .000$, $TLI = .961$, $RMSEA = .077$), 그 결과, 아버지의 심리적통제는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 .48($p < .001$), 사회불안에 .48($p < .001$)로 각각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사회불안에 .53($p < .001$), SNS중독에 .20($p < .001$)으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직접경로를 포함한 구조모형1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던 사회불안에서 SNS중독으로 가는 경로가 .13($p < .01$)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이는 차이가 있었다. 구조모형4는 수용 가능한 적합도로 자료와 부합하는 모형인 것으로 확인되었고($\chi^2 = 157.568$, $df = 49$, $p = .000$, $TLI = .958$, $RMSEA = .080$), 구조모형2의 직접 경로인 독립변수에서 종속변수로 가는 경로(어머니 심리적통제 → SNS중독)가 삭제된 모형으로, 직접경로를 포함하였을 때 매개하지 않았던 간접경로간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설정한 모형이다. 그 결과, 어머니의 심리적통제는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 .51($p < .001$), 사회불안에 .45($p < .001$)로 각각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사회불안에 .54($p < .001$), SNS중독에 .20($p < .001$)으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직접경로를 포함한 구조모형1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던 사회불안에서 SNS중독으로 가는 경로가 .12($p < .01$)로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이는 차이가 있었다. 이에 대한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5>, <표 6>과 같고, 구조모형 3,4는 <그림 7>, <그림 8>과 같다.

〈표 5〉 구조모형3 경로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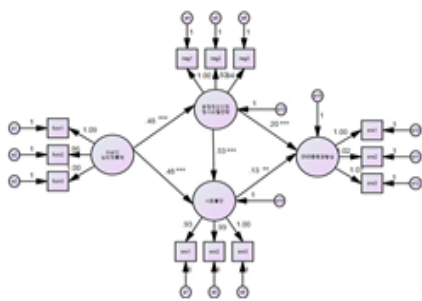
경로	B	β	SE	t
아버지 심리적통제 →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37	.48	.08	6.25***
아버지 심리적통제 → 사회불안	.28	.48	.10	5.08***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 사회불안	.40	.53	.07	7.44***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 SNS중독	.25	.20	.05	3.81***
사회불안 → SNS중독	.20	.13	.04	3.18**

※ * $p < .05$,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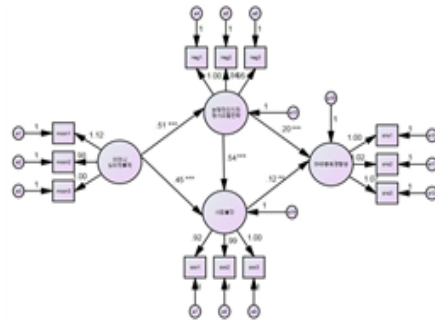
〈표 6〉 구조모형4의 경로계수

경로	B	β	SE	t
어머니 심리적통제 →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38	.51	.08	6.67***
어머니 심리적통제 → 사회불안	.26	.45	.10	4.68***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 사회불안	.41	.54	.07	7.42***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 SNS중독	.25	.20	.05	3.86***
사회불안 → SNS중독	.20	.12	.04	3.16**

※ * $p < .05$, ** $p < .01$



〈그림 7〉 구조모형1



〈그림 8〉 구조모형2

주. 숫자는 표준화 계수

※ * $p < .05$, ** $p < .01$, *** $p < .001$

〈표 7〉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형	χ^2	p	df	CFI	TLI	RMSEA (90% CI)
구조모형1	88.488	.000	48	.988	.984	.050 (.05~.08)
구조모형2	87.378	.000	48	.989	.985	.050 (.05~.08)
구조모형3	149.004	.000	49	.971	.961	.077 (.05~.08)
구조모형4	157.568	.000	49	.969	.958	.080 (.05~.08)

다. 매개효과 검증

매개효과 분석과 연구모형의 심층적 이해를 위해 변수들 간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확인 후, 1,000개의 표본 수와 95%의 신뢰구간을 설정하여 부트스트랩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신뢰구간 95%내에서 영가설에서 설정한 값이 0을 포함하지 않을 때 유의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8〉 구조모형1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및 유의성 검증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95% 신뢰구간)		
아버지 심리적통제	부적응적인지적 정서조절전략 →	사회불안	.28** (.13~.42)	.14** (.09~.22)	.42** (.28~.55)
아버지 심리적통제	부적응적인지적 정서조절전략 → 사회불안 →	SNS중독	.47** (.36~.58)	.07** (.02~.13)	.54** (.46~.64)
부적응적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사회불안 →	SNS중독	.14* (.01~.28)	.02 (-.03~.06)	.16** (.04~.27)

주. 숫자는 표준화 계수

※ * $p < .05$, ** $p < .01$

〈표 9〉 구조모형2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및 유의성 검증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95% 신뢰구간)		
어머니 심리적통제	부적응적인지적 정서조절전략 →	사회불안	.16** (.10~.39)	.16** (.10~.23)	.41** (.27~.53)
어머니 심리적통제	부적응적인지적 정서조절전략 → 사회불안 →	SNS중독	.49** (.38~.61)	.07** (.01~.13)	.56** (.47~.66)
부적응적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사회불안 →	SNS중독	.13 (-.01~.26)	.02 (-.04~.07)	.15* (.02~.26)

주. 숫자는 표준화 계수

※ * $p < .05$, ** $p < .01$

〈표 10〉 구조모형3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및 유의성 검증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95% 신뢰구간)		
아버지 심리적통제	부적응적인지적 정서조절전략 →	사회불안	.28** (.13~.43)	.15** (.09~.22)	.43** (.28~.55)
아버지 심리적통제	부적응적인지적 정서조절전략 → 사회불안 →	SNS중독		.17** (.09~.26)	.17** (.09~.26)
부적응적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사회불안 →	SNS중독	.24** (.08~.39)	.08** (.02~.14)	.32** (.20~.43)

주. 숫자는 표준화 계수

※ * $p < .05$, ** $p < .01$

〈표 11〉 구조모형4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및 유의성 검증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95% 신뢰구간)		
어머니 심리적통제	부적응적인지적 정서조절전략 →	사회불안	.26** (.10~.39)	.15** (.10~.23)	.41** (.27~.53)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95% 신뢰구간)		
어머니 심리적통제	부적응적인지적 정서조절전략 →	사회불안	.26** (.10~.39)	.15** (.10~.23)	.41** (.27~.53)
어머니 심리적통제	부적응적인지적 정서조절전략 → 사회불안 →	SNS중독		.17** (.09~.26)	.17** (.09~.26)
부적응적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사회불안 →	SNS중독	.25** (.09~.39)	.08** (.02~.14)	.33** (.20~.44)

주. 숫자는 표준화 계수

※ * $p < .05$, ** $p < .01$

앞서 구조모형에 대한 분석은 전체 매개효과를 도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각각의 매개변인에 대한 개별 간접효과나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사회불안으로 가는 다중매개효과까지는 알 수가 없는 한계가 생겨 이를 보완하고자, 팬텀변수를 사용한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4개의 구조모형에 대한 개별매개효과와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구조모형1의 결과, 아버지의 심리적통제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매개로 하여 SNS중독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만이 .05(.00~.12)로서 95%의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아버지의 심리적통제가 사회불안을 거쳐 SNS중독으로 가는 경로는 .01(-.02~.06)로 매개효과가 없고, 아버지 심리적통제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사회불안을 거쳐 SNS중독으로 가는 경로는 .07(-.01~.02)로 나타나 이중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구조모형2는 모든 간접경로가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어 매개효과 및 이중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모형 3은 구조모형1에서 유의하지 않았던 아버지 심리적통제가 사회불안을 매개로 하여 SNS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경로가 .06(.00~.16)으로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아버지 심리적통제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사회불안을 이중매개하여 SNS중독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03(.01~.05)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즉, 독립변수(아버지의 심리적통제) → 종속변수(SNS중독)의 경로를 삭제한 간접경

로만의 매개효과는 모두 유의했다.

구조모형4 역시 독립변수(어머니의 심리적통제) → 종속변수(SNS중독 경향성)을 포함한 구조모형2에서 이 경로를 제외한 모델로서, 기존에 모든 간접경로가 유의하지 않았던 것에 반해 구조모형4에서는 각 간접경로가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매개로하여 어머니 심리적통제에서 SNS중독으로 가는 경로는 .10(.03~.19), 사회불안을 매개로하여 어머니 심리적통제에서 SNS중독으로 가는 경로는 .05(.00~.15)로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두 매개 변인을 모두 거쳐 어머니의 심리적통제에서 SNS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이중매개효과 역시도 .03(.01~.06)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차이점이 있다. 이에 따른 결과는 다음 <표 12>, <표 13>, <표 14>, <표 15>에 제시하였다.

<표 12> 구조모형1 Phantom 변수를 이용한 개별매개효과와 이중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경로			estimate	(95% 신뢰구간)	
				lower	upper
아버지 심리적통제	부적응적인지적 정서조절전략	SNS중독	.05*	.00	.12
아버지 심리적통제	사회불안	SNS중독	.01	-.02	.06
아버지 심리적통제 →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 사회불안 → SNS중독			.07	-.01	.02

주. 숫자는 표준화 계수

※ * $p < .05$, ** $p < .01$

<표 13> 구조모형2 Phantom 변수를 이용한 개별매개효과와 이중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경로			estimate	(95% 신뢰구간)	
				lower	upper
어머니 심리적통제	부적응적인지적 정서조절전략	SNS중독	.05	-.002	.11
어머니 심리적통제	사회불안	SNS중독	.01	-.02	.07
어머니 심리적통제 →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 사회불안 → SNS중독			.00	-.02	.02

주. 숫자는 표준화 계수

※ ** $p < .01$

〈표 14〉 구조모형3 Phantom 변수를 이용한 개별매개효과와 이중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경로			estimate	(95% 신뢰구간)	
				lower	upper
아버지 심리적통제	부적응적인지적 정서조절전략	SNS중독	.09*	.02	.17
아버지 심리적통제	사회불안	SNS중독	.06*	.00	.16
아버지 심리적통제 →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 사회불안 → SNS중독			.03*	.01	.05

주. 숫자는 표준화 계수

※ ** $p < .01$

〈표 15〉 구조모형4 Phantom 변수를 이용한 개별매개효과와 이중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경로			estimate	(95% 신뢰구간)	
				lower	upper
어머니 심리적통제	부적응적인지적 정서조절전략	SNS중독	.10**	.03	.19
어머니 심리적통제	사회불안	SNS중독	.05*	.00	.15
어머니 심리적통제 →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 사회불안 → SNS중독			.03*	.01	.06

주. 숫자는 표준화 계수

※ ** $p < .01$

V. 결론 및 논의

1. 결과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부·모 각각의 심리적통제가 중학생 자녀의 SNS중독에 미치는 영향 및 차이점을 알리고 중학생들의 SNS중독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모교육프로그램과 학생 대상 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실시되었고 주요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모의 심리적통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사회불안, SNS중독 간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담보할 수 없다. 그러나 청소년인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 심리적통제와 어머니 심리적통제가 클수록 SNS와 유사 매체인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의 경향성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류현정, 2011; 이ერი, 이강이, 2012; 최홍일, 2013)와 일치하였다. 더 나아가 부·모로부터 정서적, 언어적 침해 행동 등의 심리적통제가 클수록 사회불안 수준이 높아진다고 보고한 김송아(2009), 안명희(2010)의 보고와도 일치하는 결과를 살펴볼 때 유의미한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Garnefski et.al.(2002)가 보고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높게 사용할수록 사회불안에 대해 청소년은 반추, 자기비난 등 과 같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사회불안은 정적상관이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더불어 종합할 때, 부·모의 심리적통제를 크게 지각한 자녀일수록 실수에 대한 염려나 수행에 대한 의심과 같은 부정적 피드백을 갖게 되고(김희영, 박성연, 2008; Soenens, 2006),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높게 사용한 자녀는 사회불안을 경험하게 되며, 사회불안이 높은 자녀는 궁극적으로 대인과 상황에 대한 불안과 회피의 대처 수단으로서의 SNS 중독 수준을 높게 될 것이라는 가설을 입증하였다.

둘째,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모형의 타당성 및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실시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의 심리적통제를 독립변인으로 설정한 구조모형1, 모의 심리적통제를 독립변인으로 설정한 구조모형2로 나누어 부·모의 심리적통제의 차이점을 알아보았다. 구조모형 1,2의 검증 결과 주목할 점은, 사회불안과 SNS중독 경향성의 경로가 앞서 상관관계 및 영향에서 다루었던 유의미한 정적 관계와 달리 유의미하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는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심리적통제를 받은 자녀가 자신이 느끼는 불안을 외면하거나 회피하려는 시도로서 매체를 과도하게 사용한다(송관재 외, 2004)는 연구결과를 지지하지 못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불안이란 위협과 위협에 대한 심리적 반응으로 특정한 상황에 대하여 자신이 위협받는다 고 받아들임으로써 야기되는 두려움, 긴장감, 우려, 근심 등의 부정적 주관적 감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대인관계나 수행에 대한 불안을 처리하는 대안적인 방안으로 SNS에 몰입하기보다 황용석 등(2014)의 연구에서 밝히듯 실제 대인관계에서 감정을 철회하고 고립되어 SNS에 과몰입하는 개인이 사회적으로 불안을 겪는다는 상반된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구조모형 3, 4를 검증한 결과, 부·모의 심리적통제와 SNS중독 경향성 간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사회불안이 각각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나타내었

고,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거쳐 사회불안으로 가는 이중매개효과 역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인터넷 중독 수준을 높이며,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하위요인인 반추와 스마트폰 중독 간의 정적 상관이 있음을 밝힌 이정민(2012)의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주 연구문제인 부·모의 심리적통제와 SNS중독 경향성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사회불안을 경로해서 가는 완전매개 형태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검증모형1(아버지 심리적통제가 SNS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과 검증모형2(어머니 심리적통제가 SNS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모두 사회불안은 매개효과를 나타내지 않음에 따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사회불안의 이중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차이점은 어머니의 심리적통제를 독립변수로 한 구조모형 2에서는 부적응적 인지조절에서 사회불안을 거쳐 SNS중독으로 가는 직접경로가 유의하지 않아 패턴변인을 사용한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한 부분에서 역시 모든 경로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심리적통제는 아버지의 심리적통제와 다르게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사회불안을 연결고리로 하여 이해하지 않더라도 SNS중독과 인과적 구조를 가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전춘애 등(2008)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구분하여 인터넷 중독 정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경우 통제가 심할수록, 아버지의 경우 통제가 적을수록 중독 위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가 지각하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심리적통제는 아버지의 심리적통제보다 SNS중독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심리적통제가 자녀로 하여금 부적응적으로 정서를 인지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SNS중독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 또한 검증되었다.

구조모형 3.4에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사회불안이 이중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통제는 자녀의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 정적 영향을 주고, 이는 사회불안에 정적 영향을 주며, 사회불안은 SNS중독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즉 청소년기에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심리적으로 통제를 받으면 자기주도 및 자율성을 방해받으며, 타인과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에 영향을 받아 고립되기 쉽다. 이는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인터넷 중독과 유의한 상관을 보임에 따라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된 자녀들은 자기비난, 타인비난, 파국화, 반추 등과 같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하여 자신이 경험한 정서를 최악의 상황이라고 받아들이는 등 갖

은 부정적 피드백을 듣거나 스스로 하게 될 것이라는 김희정(2012)의 연구에 근거한다. 이러한 부적응적 인지는 스스로에 대한 수행 및 대인관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져 그러한 불편한 감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SNS에 몰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하여 볼 때, 아버지로부터 심리적통제를 받은 청소년 자녀들이 SNS에 중독될 때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매개변인으로써 역할을 하며, 사회불안은 직접경로의 유무에 따라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친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또한 어머니의 심리적통제를 살펴 보았을 때, 매개변인인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사회불안의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독립변인인 어머니의 심리적통제만으로 SNS에 중독 될 가능성이 크며, 직접 경로를 제외한 간접경로들은 모두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연구의 의의는 첫째, 어머니의 심리적통제는 자녀의 SNS중독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사회불안이 SNS중독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지 않을 만큼 직접효과가 큰 것을 의미한다. 반면, 중학생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심리적통제는 SNS중독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매개로 SNS중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말해주듯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검증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아버지 심리적통제가 어머니 심리적통제에 비해 그 중요성이 많이 부각되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 아버지 심리적통제를 살펴봄을 통해 아버지 심리적통제가 어머니의 심리적통제와는 차별적으로 자녀의 SNS 중독에 위와 같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그 차이점을 이해하는 기틀을 마련한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중학생의 SNS 중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 중 부·모의 심리적통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사회불안을 검증하여 중학생이 SNS에 몰입하는 이유를 밝힘으로써 SNS 중독 예방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특히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통제는 자녀를 부모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심리적 수단을 이용하여 통제하거나 자녀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억제하는 것으로 자녀의 심리적 자율성 발달을 저해하는데 이를 위해 심리적통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부모역할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올바른 통제방식을 통해 부모-자녀간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자녀의 심리적 자율성을 회복하여 나아가 SNS중독을 예방해야 함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부·모의 심리적통제와 SNS중독을 매개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청소년의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이 SNS중독에 하나의 원인이 됨을 인지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SNS중독을 낮추는 방법이 될 수 있음

을 알리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셋째, 지금까지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통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사회불안 변인을 함께 연구한 선행연구가 없었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매개변인인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사회불안의 관련성이나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가 그동안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녀가 부·모의 심리적통제를 받으면 SNS중독에 영향을 받는데, 이러한 직접효과를 배제하고도 각 경로별로 관계가 유의미함을 검증하였다. 즉, 어떠한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지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사회불안을 겪게 되고 그것이 SNS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규명하였다.

2.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경기, 경상남도 지역의 7개 중학교 남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연구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지역 및 연령층 표본의 확대와, SNS중독의 수준이 높은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부·모의 심리적통제가 본 연구와 동일한 패턴으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검증적 연구 또한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 활동한 자료들은 자기보고식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수집된 것으로 응답자의 반응수준이 실제보다 과장되거나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검사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고려하여 자기보고식 측정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아버지와 어머니 관련 변인들 중 심리적통제의 영향력만을 중점적으로 규명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양육태도나 방식, 애착과 같은 좀 더 다양하고 확장된 변인들에 대한 영향력 검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청소년기에는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시기이므로 아버지와 어머니 변인 이외에도 또래관계, 친구의 지지 및 갈등, 또래동조 등과 같은 동집단 내의 요인들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본 연구의 대상이었던 중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생을 포함한 전 청소년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다섯째, 부·모의 심리적통제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사회불안을 거쳐 자녀의 SNS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해보는 것 또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김동일(2012). 미디어 이용 대체·보완과 중독 : 청소년과 성인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 형태를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20(1), 71-88.
- 김소희(2004). 스트레스 사건,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생활상담, 26, 5-29.
- 김송아(2009). 아동이 지각한 부와 모의 심리통제가 아동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민, 최은서(2010). 초기 청소년의 사회불안, 인터넷 사용, 사회적지지 및 또래관계 간의 관계. 놀이치료연구, 14(1), 121-135.
- 김현아(2015). 아버지의 심리적통제와 자녀의 정서조절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 아버지-자녀 애착의 매개된 조절효과 검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영, 박성연(2008). 어머니의 완벽주의와 심리적통제가 남, 여 아동의 완벽주의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1(3), 115-131.
- 김혜원(2001).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현상 : 인터넷 중독의 현황파악과 관련변인 분석. 청소년학연구, 8(2), 91-117.
- 김희정(2012). 부모양육태도와 인지적 정서조절 및 대인관계성향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용선(2013). 부모 양육태도가 유아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 어린이집 이용 유아를 중심으로.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7(3), 32-53.
- 남정희(2008).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정서조절양식과의 관계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현정(201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통제가 인터넷 게임중독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순(2002). 인터넷 중독의 실태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부모의 통제를 기준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용민(2011). 성인들의 스마트폰 중독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경현, 조성현(2013). SNS 중독경향성 관련요인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8(1), 239-250.

- 서문영, 전영자(2006). 중,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관련 변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4(3), 13-25.
- 서창민, 이종훈, 최태영, 김지현, 신임희, 우정민(2012). 스마트폰 중독 정도와 한국형 청소년 자기행동평가척도와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 생물치료정신의학회지, 18(2), 223-230.
- 송소원, 장석진, 조민아(2012). 학생의 휴대전화 의존도, 부모양육태도, 또래애착이 학교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12), 431-451.
- 안명희(2010). 어머니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29(4), 867-885.
- 엄민경(2013). 사회불안이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 정서표현성의 조절효과.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경자, 양윤란(2003). 청소년기 사회불안의 발생과 유지의 심리적 기제. 한국심리학회, 22(3), 557-576.
- 오윤경(2012). SNS중독경향성과 외로움, 우울, 대인관계, 사회적지지의 관계. 한국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현숙(2013). 사회불안 및 페이스북 이용동기가 SNS 중독과 페이스북 이용에 따른 심리적 문제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영민(2000).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 정보사회와 미디어, 2, 133-153.
- 이상호(2013). SNS사용자의 감정인식, 몰입이 구전에 미치는 영향: 페이스북 사용자 그룹을 중심으로. 마케팅관리연구, 18(2), 1-23.
- 이서정(2006). 정서인식의 명확성, 인지적 정서조절 및 정신건강간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자(2013). 또래와의 의사소통과 사회적 불안이 스마트폰의 SNS중독 정도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어리, 이강이(2012). 부모요인, 친구요인, 심리적 요인이 초등학생의 중독적인 휴대전화 사용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21(2), 27-39.
- 이정민(2012). 경험논문: 청소년들의 부정 정서와 인터넷 중독 간의 관계에서 메타인지와 메타기분의 중재효과. 한국상담심리학회지, 17(1).
- 전숙영(2007). 어머니의 심리통제 및 아동의 행동적 자율성과 자기 통제력이 아동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4), 169-179.

- 정윤주(2004).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행동문제-아동의 성과 또래수용도의 증재효과에 대한 탐색. *아동학회지*, 25(6), 205-22.
- 조한익, 김미점, 김영숙, 조은실(2011). 대학생용 스마트폰 의존도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연구. *중등교육연구*, 20, 35-47.
- 최홍일(2013).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 또래애착의 매개효과와 자아존중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미래청소년학회지*, 10(3), 117-139.
- 한수진(2015). 어머니의 심리적통제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경화, 홍혜영(2011).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5), 291-320.
- 황용석, 이현주, 박남수(2014). 디지털 시민성의 위계적 조건이 온오프라인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 *사회과학연구*, 25(2), 493-520.
- Bar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6), 3296-3319.
- Barber, B. K. (2002).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Davidov, M., & Grusec, J. E. (2006). Untangling the links of parental responsiveness to distress and warmth to child outcomes. *Child development*, 77(1), 44-58.
- Erwin, B. A., Turk, C. L., Heimberg, R. G., Fresco, D. M., & Hantula, D. A. (2004). The Internet: home to a severe population of individuals with social anxiety disorder?.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8(5), 629-646.
- Garnefski, N., Legerstee, J., Kraaij, V., van den Kommer, T., & Teerds, J. A. N. (2002). Cognitive coping strategies and symptoms of depression and anxiety: A comparison between adolescents and adults. *Journal of adolescence*, 25(6), 603-611.
- Garnefski, N., Kraaij, V., & Spinhoven, P. (2001). Negative life event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emotional problem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8), 1311-1327.
- Garnefski, N., & Kraaij, V. (2007). Th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23(3), 141-149.

- Griffiths, M., Miller, H., Gillespie, T., & Sparrow, P. (1999). Internet usage and 'internet addiction' in students and its implications for learning. *Journal of Computer Assisted Learning*, 15(1), 85-90.
- Kuppens, S., Laurent, L., Heyvaert, M., & Onghena, P. (2013). Associations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 multilevel and sequential meta-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49(9), 1697-1712.
- Rohner, R. P., & Veneziano, R. A. (2001). The importance of father love: History and contemporary evidence.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5(4), 382-405
- Soenens, B., Vansteenkiste, M., Duriez, B., & Goossens, L. (2006). In search of the sources of psychologically controlling parenting: The role of parental separation anxiety and parental maladaptive perfectionism.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6(4), 539-559.
- Turner, S. M., Beidel, D. C., Dancu, C. V., & Keys, D. J. (1986). Psychopathology of social phobia and comparison to avoidant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5(4), 389-394.
- Whisman, M. A., Sheldon, C., & Goering, P. (2000). Psychiatric disorders and dissatisfaction with social relationships: Does type of relationship matte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9(4), 803-808.

〈Abstract〉

**The Effect of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on the Youth's SNS Addiction
– The Mediating Effect of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Social Anxiety –**

Kwon, Hye-Min · Hong, Hye-Young
Humantss · Myongj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examine the interrelation of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ocial anxiety, and SNS addiction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and also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s of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social anxie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and SNS addiction. The data was collected from 346 middle school students. In order to identify the results, 4 different structural equation models. the first two structural equation model(No.1 and 2) included direct paths(from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to SNS addiction), and the rest two(NO.3 and 4) were adopted to elaborate the indirect paths which excluded direct path.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re as follows. In regards to the effect of father's psychological control on SNS addiction, social anxiety had no mediating effect, while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had partial mediating effect<No.1>. second, there was only direct impact of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on SNS addiction, but no mediating effects of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social anxiety<No.2>. third, Structural Equation No.3 and No.4, only the indirect path was remained, showed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complete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and SNS addiction.

Key Words: father's psychological control,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control, social anxiety, SNS addiction

자기초점적 주의와 우울 간의 관계 - 심리적 수용 및 반추의 매개효과 -

조민희 · 홍혜영*

허그맘허그인심리상담센터 · 명지대학교

본 연구는 자기초점적 주의를 자기몰입과 일반적 자기초점주의 성향으로 구분하고, 각각 우울과의 관계에서 심리적 수용과 반추가 매개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52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측정도구로는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 척도(SDSAS), Bond의 심리적 수용검사 척도(AAQ), 한국판 반추적 반응양식 척도(K-RRS), 한국판 Beck 우울 질문지(BDI)를 사용하였다. 분석을 위해 기술통계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 구조방정식 등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몰입, 일반적 자기초점주의 성향, 심리적 수용, 반추, 우울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기몰입은 반추 및 우울과 정적 상관을, 심리적 수용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일반적 자기초점주의 성향은 반추와 부적 상관을, 심리적 수용과는 정적 상관을, 우울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상관을 나타냈다. 반추는 심리적 수용과 부적 상관을, 우울과는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심리적 수용은 우울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둘째, 자기몰입, 일반적 자기초점주의 성향, 심리적 수용, 반추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몰입과 반추는 정적 영향을, 심리적 수용은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일반적 자기초점주의 성향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셋째, 자기몰입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심리적 수용 및 반추의 매개모형을 검증한 결과, 자기몰입이 심리적 수용과 반추를 거쳐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모형이 검증되었다. 넷째, 일반적 자기초점주의 성향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심리적 수용 및 반추의 매개모형을 검증한 결과, 일반적 자기초점주의 성향이 심리적 수용과 반추를 거쳐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모형이 검증되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핵심어: 자기초점적 주의, 자기몰입, 일반적 자기초점주의 성향, 심리적 수용, 반추, 우울

* 교신저자: 홍혜영(hyhong@mju.ac.kr)

■ 게재 신청일: 2017년 1월 16일 ■ 최종 수정일: 2017년 2월 09일 ■ 게재 확정일: 2017년 2월 13일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넓은 범위에서 계절성 우울증, 명절 증후군, 고3병, 월경 전 증후군, 스마일마스크 증후군, 성공 후 우울증 등은 모두 우울증의 다른 표현이다. 이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일상에서 우울을 경험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 증거로, 한국보건 의료 연구원(2010)에서는 일반인들의 72.3%가 가벼운 우울감과 무기력감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우울증은 만성적인 경과, 높은 재발률, 자살과의 깊은 연관성 등으로도 그 위험성을 주목받고 있다. 우울증 임상 연구 센터에서는 지난 2006년 2월부터 2008년 8월까지의 국내 우울증 환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1.4%가 자살을 시도했던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Judd(1997)는 한번 우울증을 경험하게 된 사람은 평균적으로 일생에 4번, 각기 20주 동안 지속되는 주요 우울삽화를 겪게 된다고 하였다(김빛나, 임영진, 권석만, 2010).

우울증에 관한 인지치료는 1967년에 처음으로 공식화된 이후 지금까지도 가장 효과적인 접근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 심리학회 실무위원회(Chambless, Baker, & Baucom, 1998)에서도 우울증의 인지치료가 지명 받을 수 있는 모든 기준을 충족한, 잘 확립된 심리치료로 인정하였다(김정범, 이상희, 2006). 이러한 인지적 입장에서는 자기 초점적 주의가 우울을 유지 또는 심화시킨다고 보았다(김별님, 이인혜, 2009; 김은정, 오경자, 1994; 김환, 이훈진, 2012; Lyubomirsky & Nolen-Hoeksema, 1994; Sloan, 2005; Watkins & Teasdale, 2004).

자기 초점적 주의란 개인의 주의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행동, 외모 등에 집중되어 있는 높은 자기자각 상태를 말한다. 일부 연구자들은 과도한 자기 초점적 주의가 우울이나 불안의 증상을 가져온다고 보았지만, 최근에는 서로 다른 두 성향의 자기 초점적 주의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거의 타당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이지영, 2001; 홍영근, 2016; Ingram, 1990; Mor & Winquist, 2002). 자기 초점적 주의는 ‘자기몰입’과 ‘일반적 자기 초점주의 성향’으로 구분된다. 자기몰입은 자신의 특정한 부분(생각, 느낌, 행동, 외모 등)에만 지나치게 주의를 기울이는 병리적인 자기 초점을 말한다. 반면, 일반적 자기 초점주의 성향은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기는 하지만 적절한 주의 분배와 융통성을 갖고 있어 적응적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에서 자기몰입과 우울은 모두 높은 정적상관을 나타냈지만, 일반적 자기 초점주의 성향과 우울은 유의미하지 않은

상관을 보고하기도 하고 낮은 수준의 정적상관을 보고하기도 하여 일관되지 않았다(이지영, 2010; 이인혜, 2008). 이처럼 자기초점적 주의를 ‘정도의 차이’가 아닌,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게 되면서 자기초점적 주의와 우울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재확인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초점적 주의를 자기몰입과 일반적 자기초점 주의 성향으로 구분하고, 우울과의 관계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반추란,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두고 계속 생각하는 것(Matin & Tessoer, 1986, 1996), 또는 우울한 기분이 들 때 계속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 생각하며 부정정서 및 신체증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말한다(Nolen-Hoeksema, 1991). 반추를 사용하면 적절한 행동이 요구될 때도 생각에만 빠져있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울도 높아진다(김진영, 2000; 박혜원, 2005; 유득권, 2010; Anderson & Limpert, 2001; Watkins & Moulds, 2007). 이처럼 반추는 우울을 잘 설명해주기에 활발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자신의 우울한 기분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자기초점적 주의와 가끔 개념이 혼동되기도 했다. 그러나 반추는 자기초점적 주의의 한 유형이라기보다 동기를 측정하는 개념이며(Silvia, Eichstaedt, & Philips, 2005), 반추를 측정하는 반추적 반응척도(Ruminative Response Scale; RRS)도 실패 사건 이후에 발생하는 우울의 반응양식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성격적인 자기초점적 주의와 구분된다(Teasdale & Green, 2004). 이어서 최근에는 자기초점적 주의가 반추와 우울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기도 했다(김환, 2010; 류석진, 조현주, 2017; 함성민, 현명호, 2015, Papageorgiou & Wells, 2001).

한편, 최근 인지행동치료 영역에서는 심리적 수용을 중심으로 한 많은 프로그램들이 활용되고 있다. 심리적 수용이란, 피하려던 사적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심리적 수용은 알아차림, 즉 자각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출발점이 되는 자기초점적 주의와 논리적 필연성을 가진다(김천수, 노안영, 2013). 심리적 수용은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그 동안 회피하는데 기울었던 노력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며 상황에 대한 대처와 문제해결 능력도 증진시킨다(Dougher, 1994; Greenberg, 1994). 반추는 생각에만 몰두하여 직접적인 행동을 방해하는 회피적 반응양식이므로,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다 도움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행동을 바꿔게 하는 심리적 수용의 속성이 도움되리라고 본다. 아직까지 심리적 수용과 반추의 직접적인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지만, 반추가 우울을 유지, 심화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수용 기법에 주목하고 있는 최근의 큰 연구 흐름이 있다(김경미, 최승원, 정인철, 2014; 김경의, 김교현, 2008; 김환, 2010; 박성현, 성승연, 2008; 한은애, 김창대, 2015; Labelle, Campbell, Carlson, 2010; Ramel, Goldin, Carmona, McQuaid,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초점적 주의가 선행된 심리적 수용이 반추와 우울을 경감 시키리라 보고, 자기초점적 주의와 우울의 관계에서 심리적 수용 및 반추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려 한다. 또한 자기초점적 주의의 서로 다른 두 성향에 주목하여 각각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몰입, 일반적 자기초점주의 성향, 심리적 수용, 반추, 우울은 서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일 것이다. 둘째, 자기몰입, 일반적 자기초점주의 성향, 심리적 수용, 반추는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심리적 수용 및 반추는 자기몰입과 우울의 관계를 부분매개할 것이다. 넷째, 심리적 수용 및 반추는 일반적 자기초점주의 성향과 우울의 관계를 부분매개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자기초점적 주의와 우울

자기초점적 주의에 대한 개념은 객관적 자기각성론(Dural & Wicklund, 1972)과 자기인식론(Fenigstein, Sceier & Buss, 1975)에서 비롯되었다. 객관적 자기각성론과 자기인식론에서 언급했던 자기인식의 개념은 자신에게 주의를 집중하는 경향을 말하며, 지금의 자기초점적 주의와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최진승, 박영희, 1996). 자기초점적 주의에 대한 초기연구들은 이때의 자기인식의 하위개념인 사적 자의식 척도(Self-Consciousness Scale; SCS)를 통해 이루어졌으나 서로 대립되고 모순적인 연구결과들을 보였다. 즉, 심리적 적응과 정신건강을 돕는 긍정적인 요인으로도(Hall, 1992; Trapnell & Campbell, 1999), 우울과 불안 등을 악화시키는 부정적인 요인으로도 각각 보고되었던 것이다(Scheier & Carver, 1977; Smith & Greenberg, 1981). 따라서 자기초점적 주의의 상반된 견해를 설명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져 왔다. 일부 연구자들은 과도한 자기초점적 주의가 우울이나 불안의 증상을 가져온다고 보았지만, 최근에는 서로 다른 두 성향의 자기초점적 주의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더 받아들여지고 있다(윤학미, 오수성, 2016; 이인혜, 2008; Mor & Winquist, 2002). Ingram(1990)은 자기초점적 주의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메타분석하여 자기초점적 주의의 정도, 지속성, 융통성의 세 요소를 찾아내고, 이 세 요소를 적용하여 정상적인 자기초점과 병리적인 자기초점으로

구분하였다. 이때 병리적인 자기초점적 주의를 자기몰입으로 명명하였다. 이지영(2001)도 이 관점을 받아들여 ‘자기몰입’과 ‘일반적 자기초점주의 성향’으로 구분되는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 척도(Sclae for Disponitional Self-focused Attention in Social situation; SDSAS)를 개발하였다. 자기초점적 주의가 높은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했던 감정을 이후 더 강하게 경험하고, 자신에 대한 평가과정이 생겨나 실패에 대해 내적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그 결과물로 자존감이 저하되며, 자기 행동에 관한 자기 보고의 정확성이 증가하게 된다. 이것은 우울증에서 보이는 인지적 특성과 아주 유사하다. 따라서 자기초점적 주의와 우울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입증되어 왔다(조아라, 오경자, 1997; 최이순, 김영환, 1991; Musson & Alloy, 1988; Rimes & Watkins, 2005). 또한 단순 상관관계를 넘어서 자기초점적 주의가 역기능적 귀인 양식, 우울 정서의 강도, 낮은 자존감과 같은 대표적인 우울 증상을 매개한다는 연구결과들도 보고되고 있다(김진영, 2000).

2. 심리적 수용

심리적 수용은 낮은 수준의 ‘물러남과 견디기’에서 높은 수준의 ‘기꺼이 경험하기’까지로 이어지는 연속선상의 수준에 있다. 심리적 수용이 높은 수준에 도달하면 더 이상 사적 경험에 대해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심리적 사건들이 나타났을 때 효율적으로 행동하여 능동적인 참여를 하게 된다(Hayes, 1994). 또한 자신이 피하려 했던 경험들이 사실은 위협적이지 않고 스스로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음을 알게 되며, 상황에 대한 대처와 문제해결 능력이 증진되어 삶의 적응력과 안녕감이 향상되기도 한다(Dougher, 1994). 윤호균(2005)은 경험을 수용하게 되면 자신의 모든 경험에 대해 소중하고 가치롭게 여기게 되어서 보다 도움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행동이 바뀌게 될 거라고 하였다. 반대로 심리적 수용의 수준이 낮고 경험에 대해 회피하는 기제가 활성화되면 정신병리에 대해서도 취약해진다(Purdon & Clark, 2001; Romer & Borkovec, 1994; Wegner, 1994). 최근 인지행동치료 영역에서는 심리적 수용을 중심으로 한 많은 프로그램들이 활용되고 있으며 예로는 위빠사나 명상, 마음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Mindfulness Based Stress Reduction program; MBSR), 마음챙김에 근거한 인지치료(Mindfulness Based Cognitive Therapy; MBCT), 변증법적 행동치료(Dialectical Behavior Therapy; DBT), 수용전념치료(Acceptance Commitment Therapy; ACT) 등이 있다. Bunce(2000)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검증에서 심리적 수용이 우울을

경감시켜 주었으며, Deyo 등(2009)은 수용 기법 중 하나인 마음챙김을 이용하여 반추와 우울을 감소시켰다. 즉, 불쾌했던 경험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 등을 수용하게 되면 경험 회피를 감소시키고 스스로 가치를 부여한 행동을 지향하여 우울을 낮출 수 있다(문현미, 2005; 안혜원, 2008; Dougher, 1994; Hayes & Strosahl, 2004).

3. 반추

반추는 Nolen-Hoeksema(1991)의 우울에 대한 반응양식 이론에 의해 재조명되었으며, 생각에만 빠져들어 직접적인 행동을 방해하는 회피적 반응양식으로 알려져 있다. 반응양식 이론이란, 사람들은 저마다 우울 기분에 반응하는 일정한 양식을 갖고 있으며, 우울한 기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우울의 유지와 심화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말한다. 이때 사람들은 우울한 기분에 빠져들어 관련된 경험이나 생각 등에 대해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반추적 반응양식을 사용하거나, 자신과 관련되지 않은 외부의 자극으로 주의를 전환하는 반응양식을 사용하게 된다. 그런데 우울에 대해서 반추적 반응양식을 주로 사용하면 부정적인 정서 상태에 몰입하여 점점 부정적으로 치우쳐진 사고를 하게 되고 결국 우울이 악화된다.

한편, 일부 연구자들은 반추의 개념이 적응적인 특성과 부적응적인 특성으로 구분된다고 주장한다(김진영, 2000; 박윤아, 2004; Luminet, 2004; Mor & Winquist, 2002; Papageorgiou & Wells, 1999; Siegle, Moore, & Thase, 2004). 반추는 자책, 숙고, 우울반추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된다(Treynor, Gonzalez, & Nolen-Hoeksema, 2003). 첫째, 자책은 부정적인 기분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며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숙고는 자신에게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원인을 심사숙고하는 것이다. 셋째, 우울반추는 주로 우울한 기분과 증상에 집중하는 반응양식이다. 우울반추는 보통 우울증을 지속시키고 재발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경기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7곳의 대학에서 총 567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중 무성의한 표기를 하거나 2개 이상의 결측값을 가진 설문지 47부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520명의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남학생은 218명으로 전체 인원의 41.9%였고, 여학생은 전체 인원의 58.1%인 302명에 해당하였다. 수거된 설문조사 내용은 연구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음을 미리 밝혀 이에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설문지에 스스로 서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측정도구

가.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 척도

이지영과 권석만(2005)이 두 가지 이질적인 자기초점적 주의의 성향을 구분해내기 위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몰입 21문항과 일반적 자기초점 주의 성향 9문항, 총 3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Likert식 5점 척도로 동의 또는 반대를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지영(2010)의 연구에서는 자기몰입이 Cronbach's $\alpha = .79$ 이었고 일반적 자기초점주의 성향이 Cronbach's $\alpha = .94$ 이었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 = .92$ 이며, 자기몰입이 Cronbach's $\alpha = .93$, 일반적 자기초점주의 성향이 Cronbach's $\alpha = .80$ 이었다.

나. 한국판 반추적 반응 양식 척도

Nolen-Hoeksema(1991)가 개발한 반추적 반응 척도(Ruminative Response Scale)를 김소정, 김지혜, 윤세창(2010)가 번안한 것으로 사용하였다.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식 척도로 1점(전혀 아니다)에서부터 4점(거의 그렇다) 사이에서 동의 또는 반대를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자책과 숙고, 우울반추의 세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반추적인 반응양식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한국판 반추적 반응 양식 척도는 Cronbach's $\alpha = .89$ 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반추적 반응양식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 = .92$ 이었고, 하위변인으로는 자책이 Cronbach's $\alpha = .85$, 숙고가 Cronbach's $\alpha = .83$, 우울반추가 Cronbach's $\alpha = .85$ 이었다.

다. Bond 심리적 수용 검사척도

Bond의 AAQ-16문항 검사(Acceptance and Action Questionnaire-16)를 김인구와 김완석(2008)이 한국판 타당화 연구를 실시한 것으로 사용하였다. 김인구와 김완석(2008)의 연구에서 Bond 심리적 수용 검사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 = .70$ 이었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심리적 수용 검사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 = .78$ 이었다. 하위변인으로는 비판단적 노출은 Cronbach's $\alpha = .77$ 이었고, 장기목표 행동은 Cronbach's $\alpha = .78$ 이었으며, 단기목표 행동은 Cronbach's $\alpha = .71$ 로 나타났다.

라. Beck 우울 질문지

Beck, Ward, Mendelson, Mock 및 Erbaugh(1961)가 우울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21개 문항의 자기보고형 검사이다. 각 항목은 증상의 정도를 달리하는 네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1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검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영호와 송종용(1991)이 번안한 한국판 Beck 우울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8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우울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 = .91$ 이며, 우울 척도의 하위요인으로는 정서적 Cronbach's $\alpha = .74$, 인지적 Cronbach's $\alpha = .79$, 동기적 Cronbach's $\alpha = .85$, 생리적 Cronbach's $\alpha = .85$ 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결과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과 AMOS 18.0 프로그램에 의해 처리되었다. 첫째, 자료의 전반적인 기술통계량을 분석하기 위해서 빈도분석 등의 기술통계분석을 사용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셋째,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기초점적 주의, 심리적 수용, 반추, 우울에 대한 Pearson의 적률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정상분포 가정의 충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각 측정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였다. 넷째, 자기초점적 주의, 심리적 수용, 반추가 우울을 예측하는 유용한 변인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별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자기초점적 주의와 우울 관계에 대한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연구가설에서 제시한 이론적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최대우도법을 적용한 구조방정식 모형(SEM)을 사용하였다. 일곱째, 부트스트랩 방법을 사용하여 변인 간의 매개효과 및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자기초점적 주의, 심리적 수용, 반추, 우울의 상관분석 결과

주요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자기몰입은 심리적 수용과 $r = -.39$ 로 유의미한 부적상관을($p < .01$), 반추와 $r = .55$ 로 유의미한 정적상관($p < .01$)을, 우울과 $r = .32$ 로 유의미한 정적상관($p < .01$)을 나타내었다. 일반적 자기초점주의 성향은 심리적 수용과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었지만, 심리적 수용의 각각 하위요인, 우울과 $r = .32$ 로 유의미한 정적상관($p < .01$)을 나타내었다. 일반적 자기초점주의 성향은 심리적 수용과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었지만, 심리적 수용의 각각 하위요인들과는 비판단적 노출 $r = -.12$, 장기목표 행동 $r = .12$, 단기목표 행동 $r = .16$ 으로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일반적 자기초점주의 성향은 반추와 $r = .27$ 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냈으나($p < .01$), 우울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심리적 수용과 반추는 $r = -.51$ 로 유의미한 부적상관을($p < .01$). 심리적 수용과 우울은 $r = -.45$ 수준의 유의미한 부적상관($p < .01$)을 나타내었으며, 반추와 우울은 $r = .62$ 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을($p < .01$) 나타내었다.

〈표 1〉 자기몰입, 일반적 자기초점주의 성향, 심리적 수용, 반추, 우울의 상관분석 결과

	1	1-1	1-2	2	2-1
1. 자기초점적주의	1				
1-1. 자기몰입	.95**	1			
1-2. 일반적자기초점	.58**	.32**	1		
2. 심리적수용	-.33**	-.39**	.03	1	
2-1. 비판단적노출	-.29**	-.30**	-.12**	.72**	1
2-2. 장기목표행동	-.26**	-.34**	.12**	.80**	.27**
2-3. 단기목표행동	-.09**	-.17**	.16**	.58**	-.01
3. 반추	.55**	.55**	.27**	-.51**	-.40**
3-1. 자책	.51**	.51**	.22**	-.53**	-.38**
3-2. 숙고	.47**	.43**	.31**	-.28**	-.27**
3-3. 우울반추	.47**	.48**	.18**	-.49**	-.34**
4. 우울	.28**	.32**	.01	-.45**	-.28**
4-1. 정서적	.27**	.30**	.04	-.44**	-.27**
4-2. 인지적	.28**	.33**	-.01	-.44**	-.24**
4-3. 동기적	.20**	.24**	-.01	-.41**	-.26**
4-4. 생리적	.20**	.23**	.01	-.22**	-.20**
평 균	2.75	2.73	3.42	4.36	3.79
표준오차	.64	.87	.66	.83	1.19
왜 도	.26	.32	.01	.16	.01
첨 도	-.11	-.41	-.23	-.19	-.30

2-2	2-3	3	3-1	3-2	3-3	4	4-1	4-2	4-3	4-4
1										
.53**	1									
-.45**	-.18**	1								
-.49**	-.21**	.89**	1							
-.22**	-.05	.82**	.60**	1						
-.45**	-.22**	.89**	.74**	.60**	1					
-.46**	-.21**	.62**	.58**	.44**	.61**	1				
-.46**	-.19**	.63**	.59**	.46**	.61**	.90**	1			
-.47**	-.25**	.58**	.57**	.40**	.54**	.90**	.80**	1		
-.42**	.20**	.54**	.51**	.36**	.55**	.89**	.74**	.75**	1	
-.19**	-.03	.34**	.28**	.27**	.33**	.70**	.51**	.49**	.53**	1
4.82	4.69	2.01	2.14	1.95	1.94	.42	.37	.49	.55	.28
1.15	1.13	.57	.68	.69	.58	.39	.43	.51	.50	.36
-.04	-.15	.53	.44	.63	.66	1.60	.10	.10	.10	.10
-.61	-.60	-.08	-.43	-.14	.23	3.45	5.67	2.27	1.29	4.51

2. 자기초점적 주의, 심리적 수용, 반추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검증

자기초점적 주의를 독립변인으로, 우울을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 F 통계값은 46.11, 유의확률 .000 수준에서 우울의 총 변화량의 8%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인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개별 독립변인의 종속변인에 대한 기여도를 알아보면, 자기몰입은 우울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beta=.36, p<.001$), 일반적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수용 전체를 독립변인으로, 우울을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 F 통계값은 136.93, 유의확률 .000 수준에서 우울의 총 변화량의 20%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인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개별 독립변인의 종속변인에 대한 기여도를 알아보면, 비판단적 노출($\beta=-.16, p<.001$)과 장기 목표 행동($\beta=-.42, p<.001$)은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을 나타냈지만, 단기 목표 행동은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지 않았다. 반추 전체를 독립변인으로, 우울을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 F 통계값은 330.03, 유의확률 .000 수준에서 우울의 총 변화량의 38%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인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개별 독립변인의 종속변인에 대한 기여도를 알아보면, 자책($\beta=.28, p<.001$), 숙고($\beta=-.05, p<.001$), 우울반추($\beta=.36, p<.001$)의 세 하위요인 모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우울에 대한 자기초점적 주의, 심리적 수용, 반추의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우울	자기몰입	.16	.02	.36	8.32***	R = .34 R ² = .11 F = 34.65***
	일반적자기초점	.01	.02	.01	.27	R = .01 R ² = .00 F = .07
	자기초점적주의 (전체)	.17	.02	.28	6.79***	R = .28 R ² = .08 F = 46.11***
	비판단적노출	-.05	.01	-.16	-4.12***	R = .49
	장기목표행동	-.14	.01	-.42	-8.88***	R ² = .24
	단기목표행동	.01	.01	.01	.31	F = 55.35***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우울	심리적수용 (전체)	-.21	.01	-.45	-11.70***	R = .45 R ² = .20 F = 136.93***
	자책	.16	.31	.28	5.29***	R = .64 R ² = .41 F = 121.06***
	숙고	.03	.02	.05	1.18***	
	우울반추	.24	.03	.36	6.89***	
	반추 (전체)	.42	.02	.62	18.16***	R = .62 R ² = .38 F = 330.03***

※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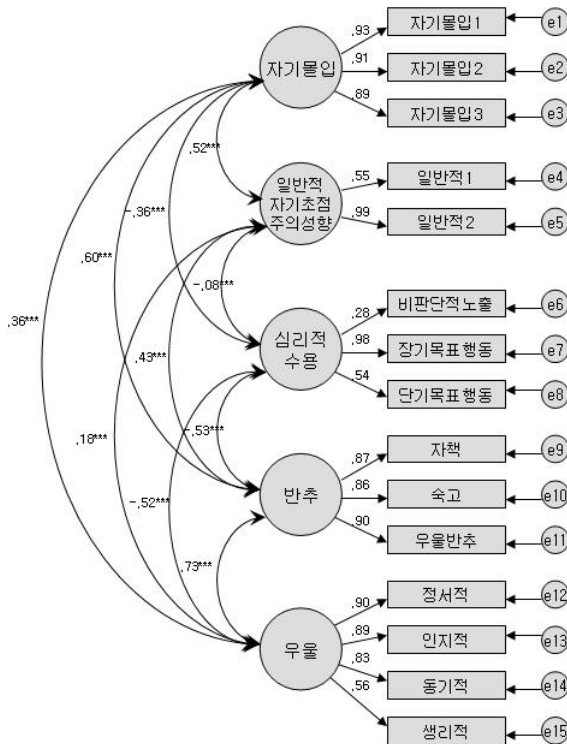
3.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다변량정규성을 가정하는 최대우도법(ML)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기 위해 먼저 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사용된 측정모형을 살펴본 결과 CFI = .945, TLI = .929, NFI = .930으로 모두 0.9 이상의 기준치에 부합하였고 RMSEA = .079로 괜찮은 적합도를 보여주고 있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자기몰입과 일반적 자기초점주의 성향을 각기 다른 독립변인으로 취급하였으므로 측정변수를 생성하기 위해 Russeil 등(1998)이 제안한 방법에 따라 잠재변수들에 대해 각각의 꾸러미(item parcels)를 제작하여 항목묶음 하였다.

〈표 3〉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χ^2	df	CFI	TLI	NFI	RMSEA (90% 신뢰구간)
341.03***	81	.945	.929	.930	.079 (.070-.087)

※ *** $p < .001$



〈그림 1〉 측정모형의 표준화 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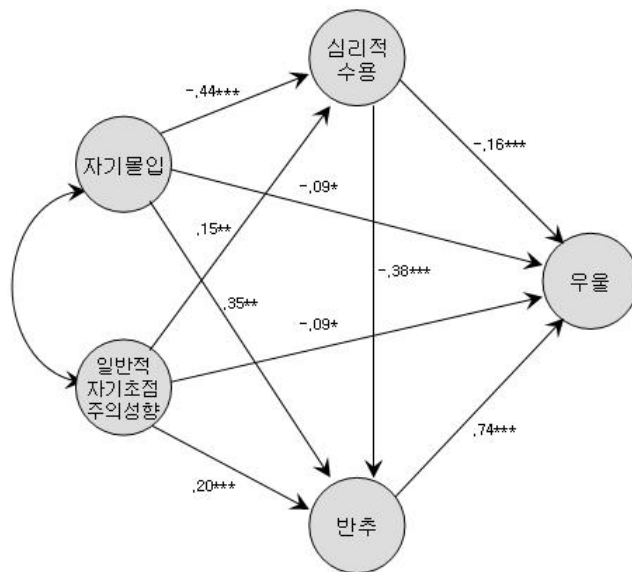
※ * $p < .05$, ** $p < .01$, *** $p < .001$

4. 자기초점적 주의와 우울 간 관계에서 심리적 수용 및 반추의 매개효과 검증

가. 구조모형 검증

자기초점적 주의의 두 하위요인인 자기몰입과 일반적 자기초점주의 성향을 각각 개별적인 독립변인으로 보고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모형에서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자기초점적 주의가 심리적 수용과 반추의 매개효과를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CFI=.945, TLI=.929, NFI=.930으로 모두 0.9 이상의 기준치에 부합하였고, 절대적 적합도 지수도 RMSEA=.079을 나타내 연구모형의 적합도가 전체적으로 괜찮은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 가설을 설정했던 모든

경로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부분매개모형임을 나타냈다. 자기몰입은 심리적 수용($\beta = -.44, p < .001$)과 부적인 직접효과를, 일반적 자기초점주의 성향은 심리적 수용($\beta = .15, p < .001$)과 정적인 직접효과를 보였다. 즉, 자기몰입과 일반적 자기초점주의 성향은 심리적 수용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상반되게 나타났다. 자기몰입($\beta = .35, p < .001$)과 일반적 자기초점주의 성향($\beta = .20, p < .001$)은 반추와도 유의미한 정적인 직접효과가 있었다. 그런데 자기몰입과 일반적 자기초점주의 성향이 심리적 수용에 대해 각기 다른 효과를 보여준 데 반해, 반추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정적인 직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수용($\beta = -.38, p < .001$)은 반추와 부적인 효과가 있었으며, 반추는($\beta = .74, p < .001$) 우울에 대해 유의미한 정적 효과를 보여주었다. 경로계수의 절대값은 .10보다 작으면 작은 효과이며, .10에서 .50이면 중간효과, .50이상이면 큰 효과라고 볼 수 있다(Kline, 1998). 따라서 매개변인으로 설정된 반추는 우울에 대해 상당히 큰 효과를 지닌다고 해석된다. 한편 자기몰입은 우울과 정적 상관을 보이는데 반해, 매개모형 검증에서는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일반적 자기초점주의 성향은 우울과 유의미하지 않은 상관을 보였지만, 매개모형 검증에서는 유의미하게 보고되었다. 즉, 자기몰입과 일반적 자기초점주의 성향은 매개모형 검증 결과에서 억제효과가 발휘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림 2〉 구조모형의 표준화 계수

※ * $p < .05$, ** $p < .01$, *** $p < .001$

〈표 4〉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χ^2	df	CFI	TLI	NFI	RMSEA (90% 신뢰구간)
341.03***	81	.945	.929	.930	.079 (.070 – .087)

※ *** $p < .001$

나. 억제효과 검증

자기몰입이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회귀분석 결과에도 불구하고 매개모형 검증에서 방향이 정반대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반적 자기초점주의 성향은 우울과 직접적인 상관을 보고하지 않았지만 매개모형 검증에서 유의미한 부적 영향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리적 수용 또는 반추의 억제효과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MacKinnon (2000)이 제안한 절차를 따라 억제효과 검증을 한 결과, 매개모형에서 심리적 수용과 반추 모두 억제효과를 지니고 있었으며, 내용은 <표 5>와 같다.

〈표 5〉 심리적 수용 및 반추의 억제효과 검증

	투입 전	심리적 수용 투입 후	반추 투입 후
자기몰입 → 우울	.326***	-.388***	.636***
일반적자기초점 → 우울	.012	-.457***	.624***

※ * $p < .05$, ** $p < .01$, *** $p < .001$

다.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는 자기몰입, 일반적 자기초점주의 성향, 심리적 수용, 반추, 우울의 효과성을 분해하여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총효과를 살펴보고, 매개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원자료를 이용한 부트스트랩 방법을 이용하였다. 구조모형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먼저 자기몰입과 우울의 관계에서 심리적 수용 및 반추의 매개효과는 .465로 .05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몰입이 심리적 수용과 반추를 매개할 때 우울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자기초점주의 성향은 심리적 수용과 반추를 매개할 때 우울에 대해 .089의 간접효과를 보고하였는데, 이것은 자기몰입과 우울 간 관계에 비해 명백히 낮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매개모형은 .05수준에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즉, 이중매개효과의 타당성이 검증되었고 단순매개효과 역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표 6〉 우울에 대한 설명요인들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설명요인	우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자기몰입	-.099*	.465*	.367*
일반적자기초점	-.098*	.089*	-.009
심리적수용	-.165*	-.286*	-.452*
반추	.748*	-	.748*

※ * $p < .05$, 95% 신뢰구간에서 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한 값

〈표 7〉 구조모형 경로에 대한 표준화 추정치, 표준오차 및 95% 신뢰 구간

효과(경로계수)	표준화 추정치	SE	95% 신뢰구간 Bootstrapping percentile	
			Lower	Upper
			자기몰입 → 심리적수용 → 반추 → 우울	.465*
일반적자기초점주의성향 → 심리적수용 → 반추 → 우울	.089*	.04	.036	.182

※ * $p < .05$

V. 논 의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자기초점적 주의, 심리적 수용, 반추, 우울의 관계를 파악하고 자기초점적 주의와 우울 간 관계에서 심리적 수용 및 반추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우울이 유지, 심화되는 과정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초점적 주의(자기몰입, 일반적 자기초점주의 성향), 심리적 수용, 반추, 우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자기몰입과 우울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일반적 자기초점주의 성향과 우울은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

초점적 주의 척도(SDSAS)를 사용하였을 때 자기몰입이 우울에 높은 정적상관을 나타냈던 이지영(2010)과 이인혜(2008)의 연구를 지지한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에서도 일반적인 자기초점주의 성향은 우울과 일관되지 않은 상관관계를 보고하고 있으므로 추후 계속해서 살펴보아야 하겠다. 심리적 수용은 자기몰입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나타냈지만, 일반적 자기초점주의 성향과는 정적상관을 보고하였다. 이는 자기몰입과 달리 일반적 자기초점주의 성향이 자기에게 초점을 집중시키기는 하지만 융통성 있고 적절한 주의 분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목표와 가치에 기반하는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Farber, 1989; Wicklund & Gollwitzer, 1987). 자기몰입, 일반적 자기초점주의 성향, 반추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부정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 반복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생각에 몰두함으로써 문제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되면 더 나아지지 않는 현실을 비판하며, 부정적인 자기 평가를 하게 되고 낮은 자존감을 불러들여 깊은 우울감에 빠지게 된다(Monfries & Kafer, 1994). 심리적 수용은 반추와 부적상관으로 나타났다. 반추를 하게 되면 적절한 행동이 요구될 때도 생각에만 빠져있어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김진영, 2000; 박혜원, 2005; 유득권, 2010; Nolen-Hoeksema, 2000; Watkins & Moulds, 2007). 그런데 최근 인지적 입장에서는 수용 기법이 반추를 경감시켜줄 수 있다고 보았다(김경의, 김교현, 2008; 김환, 2010; 박성현, 성승연, 2008; Deyo, Wilson, & Koopman, 2009). 즉, 수용의 비판단적이고 비분석적인 태도가 반추를 통해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드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행동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심리적 수용의 특성으로 인해 반추가 행동을 회피하는 것을 억제시킬 수 있다.

둘째, 자기몰입, 일반적 자기초점주의 성향, 심리적 수용, 반추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병리적인 자기몰입($\beta = .36, p < .001$)과 반추($\beta = .62, p < .001$)는 우울을 증가시키고, 심리적 수용($\beta = -.45, p < .001$)은 우울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적 자기초점주의 성향은 우울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초기의 연구에서는 자기초점적 주의를 ‘정도의 차이’에 따른 단일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최근에는 자기초점적 주의의 서로 다른 두 성향을 구분하면서 각각 우울에 다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김영아, 오경자, 문혜신, 김진관, 1999; 이인혜, 2008; 정승아, 오경자, 2004; Ingram, 1990; Trapnell & Campbell, 1999). 본 연구에서도 자기몰입과 일반적 자기초점주의 성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 선행연구들의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 한편, 심리적 수용은 우울을 경감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회귀분석 결과는 심리적 수용이 심리적 적응과 건강에 기여하고 정신병리를 낮춘다는 문현미(2006)와 Hayes 등(2001)의 견해와 일맥상통하다.

셋째, 자기몰입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심리적 수용 및 반추의 매개효과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심리적 수용과 반추를 매개하여 자기몰입과 우울에 이르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부적응적인 자기초점적 주의로 여겨지는 자기몰입에서 우울로 이르는 경로를 설명하던 선행연구들을 지지한다(이지영, 2009; 이인혜, 2008; Sloan, 2005; Smith & Greenberg, 1981). 그런데 본 연구에서 자기몰입은 우울과의 정적상관을 보고하였지만 매개모형 검증에서는 정반대의 경로계수를 나타냈다. 이처럼 구조방정식의 모형 검증에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정반대의 부호를 지닐 경우 억제효과를 의심해볼 수 있다(조화진, 서영석, 2010; Cogen, Cohen, Aiken, & West, 2002). 의심되는 억제효과를 검증한 결과, 자기몰입과 우울의 관계에서 심리적 수용과 반추의 매개변수가 억제효과를 갖는다고 확인되었다. 즉, 심리적 수용과 반추가 우울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Hayes 등(2006)의 메타분석 결과에서는 심리적 수용과 우울의 높은 상관을 나타냈고, 문현미(2006)도 심리적 수용 촉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울의 유의미한 감소를 보고한 바 있다. 그 밖에도 심리적 수용이 우울을 낮춘다는 많은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양수연, 신현균, 2013; 이진주, 김은정, 2015; Kanter, Baruch, Gaynor, 2006; McCarthy, McMahon, 2008; Scott, 2007). 반면, 반추는 우울을 설명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설명되고 있으며, 김진영(2000)은 우울한 감정과 자동적 사고에 몰입하게 하는 반추가 우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본 연구의 매개모형을 검증해본 결과, 자기몰입이 심리적 수용과 반추를 매개하여 우울로 이르는 .465의 간접효과를 나타냈다. 설명하자면, 자신의 특정한 측면에만 과도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자기몰입의 부적응적인 특성에 의해 심리적 수용이 반추와 우울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경로는 오히려 반추의 역기능성을 활성화시켜 우울에 이르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기몰입이 가지는 경직성이 반추에서 우울로 이르게 한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며(김환, 2010; 류석진, 조현주, 2017; Hsu, Berad, Rifkin, Dillon, Pizzagalli, & Bjorgvinsson, 2015), 같은 맥락에서 반추가 우울에 이르는 강력한 요인이라는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지지한다(김경의, 김교현, 2008; 김은정, 오경자, 1994; 이은지, 박수현, 2013; 이혜림, 최윤경, 2012; Nolen-Hoeksema, 2002; Matthews, Wells, 2004).

넷째, 일반적 자기초점주의 성향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심리적 수용과 반추의 매개효

과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자기초점주의 성향과 우울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지만, 심리적 수용과 반추를 매개로 한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에서는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보였다. 이에 의심되는 억제효과를 검증해본 결과, 일반적 자기초점주의 성향과 우울의 관계에서 심리적 수용과 반추의 매개변수가 억제효과를 갖는다고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보려 한다. 먼저 자기몰입과 우울 간 간접효과가 .465를 보인 데 비해, 일반적 자기초점주의 성향과 우울 간 간접효과는 .089의 비교적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것은 일반적 자기초점주의 성향이 심리적 수용을 높이는 했지만, 이러한 경로가 반추의 역기능성을 크게 경감시키지는 못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다. 선행연구들에서 반추는 우울을 설명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김빛나, 임영진, 권석만, 2010; 박혜원, 2005; 유득권, 2010; Nolen-Hoeksema, 2000; Watkins & Moulds, 2007).

다른 측면으로는, 본 연구의 매개경로가 우울을 증가시켰지만 이를 일시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는 일반적 자기초점주의 성향과 심리적 수용이 반추의 어떠한 속성을 활성화시키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반추의 하위요인인 자책, 숙고, 우울반추 중 숙고는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의 상태를 자각하려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우울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김인구, 김완석, 2008). 그렇기 때문에 숙고는 반추의 적응적인 측면으로 여겨지며, 이것을 입증하기 위한 추적연구 결과에서도 자책은 우울을 계속 증가시키지만 숙고는 우울과의 상관이 낮아졌다고 보고하였다(Nolen-Hoeksema, 2004; Watkins & Teasdale, 2001). 본 연구의 상관분석 결과에서도 일반적 자기초점주의 성향은 반추의 하위요인 중 숙고와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심리적 수용도 숙고와 가장 낮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일반적 자기초점주의 성향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심리적 수용과 반추의 매개효과는 종단적으로 연구되어야 우울을 경감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이때 일반적 자기초점주의 성향과 심리적 수용이 반추의 세 하위요인 중 숙고에 영향을 주게 되면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우울을 낮춰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자책과 우울반추가 활성화된다면 아마도 우울에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초점적 주의의 서로 다른 두 성향을 각각 독립적인 변인으로 간주하여 우울과의 관계를 확인하여 다차원적인 관점에서의 입장을 재확인하였기에 그 의의가 있다. 둘째, 자기초점적 주의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심리적 수용 및 반추의 매개효과를 확인해봄으로써 자기몰입의 역기능적 속성을 언급한 선행 연구들의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셋째, 일반적 자기초점주의 성향이 우울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심리적 수용 및 반추를 매개할 때 우울과의 유의미한 관계성이 보고되었으므로 이들 관계에 대한 후속연구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수도권에 위치한 7곳의 대학생을 대상으로만 설문조사 되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표집을 이루어 본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설문에 응한 대상자들이 자기보고식 질문지에 의하여 응답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추후에는 자기보고식 질문지와 함께 실험연구를 행하기를 권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몰입, 일반적 자기초점주의 성향과 우울 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일반적 자기초점주의 성향이 우울과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일반적 자기초점주의 성향과 우울의 관계에 대해서는 선행연구 결과들이 일관되지 않게 보고되고 있어 후속연구에서 면밀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넷째, 자기초점적 주의와 심리적 수용의 상관관계에서 자기몰입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지만, 일반적 자기초점주의 성향은 심리적 수용의 하위요인 중 장기목표행동, 단기목표행동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심리적 수용의 행동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일반적 자기초점주의 성향과의 관계를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일반적 자기초점주의 성향과 우울 간 관계에서 심리적 수용 및 반추의 매개효과가 보고되었다. 그런데 반추의 적응적 측면인 숙고를 장기추적하게 되면 후에 우울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므로, 추후 종단적으로 추적하여 이들 관계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김경의, 김교현(2008). 게시발표: 마음챙김과 반추 및 우울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단일호, 48-49.
- 김별님, 이인혜(2009). 감사 지각이 자기초점주의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 2, 363-382.
- 김빛나, 임영진, 권석만(2010). 탈중심화가 내부초점적 반응양식과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 2, 573-596.
- 김소정, 김지혜, 윤세창(2010). 한국판 반추적 반응 척도(K-RRS)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 1, 1-19.
- 김영아, 오경자, 문혜신, 김진관(1999). 사적 자의식 구인의 두 가지 심리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 1, 69-78.
- 김인구, 김완석(2008). Bond 심리적 수용 검사척도(AAQ)에 대한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 3, 815-832.
- 김은정, 오경자(1994). 우울증상의 지속에 영향을 주는 인지 및 행동요인들: 3개월간 추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3, 1, 1-19.
- 김정범, 이상희(2006). 우울장애에 대한 인지행동치료의 최근 연구동향. 인지행동치료, 6, 2, 131-144.
- 김진영(2000). 우울한 기분에 대한 두 가지 내부초점적 반응양식: 반추적 반응양식 대 반성적 반응양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 환(2010). 자기초점의 역기능적 속성이 반추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문현미(2006). 심리적 수용 촉진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수용-전념 치료 모델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성현, 성승연(2008). 자기-초점적 주의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마음챙김의 조절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 4, 1127-1147.
- 박혜원(2005). 내부초점적 반응양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반추적 반응의 매개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득권(2010). 반추적 반응양식과 자기조직화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호, 송종용(1991). BDI , SDS ,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 1, 98-113.
- 이인혜(2008). 자기초점적 주의가 자전기억의 과일반화와 우울에 미치는 효과: 자기초점적 주의의 적응성과 부적응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 3, 633-651.
- 이지영(2001). 대인불안 성향자의 자기초점 주의 성향의 특징: 방어적 자기초점 주의 성향 대 비방어적 자기초점 주의 성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영, 권석만(2005).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 척도의 개발: 사회적 상황을 중심으로. 한국임상학회지: 임상, 24, 2, 451-464.
- 이지영(2010). 자기초점화 주의 성향과 정신병리의 관계: 적응적 대 부적응적 자기초점적 주의.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 2, 371-388.
- 이지영(2011). 자기초점적 주의와 정서조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 1, 113-133.
- 정승아, 오경자(2004). ‘부적응적 자기초점화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 2, 471-482.
- 조화진, 서영석(2010). 부모애착, 분리-개별화, 성인애착, 대학생활적응,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 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 2, 385-411.
- 최미례(2004). 우울에 미치는 우울반응양식의 효과: 남녀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 4, 953-972.
- Andersen, S. M. & Limpert, C.(2001). Future-event schemas: Automaticity and rumination in major depress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5, 3, 311-333.
- Deyo, M. Wilson, K. A. Ong, J. & Koopman, C.(2009). Mindfulness and rumination: Does mindfulness training lead to reductions in the ruminative thinking associated with depression? *Patient Education and Counseling*, 5, 265-271.
- Dural, S. & Wicklund, R. A.(1972). *A theory of objective self-awareness*, New York: Academic Press.
- Feinigstein, A. Sneier, M. F. & Buss, A. H.(1975).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Assessment and theory,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43, 522-527.
- Duval, T. S. & Silvia, P. J.(2001). Objective self-awareness theory: Recent progress and enduring problem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5, 3, 230-241.

- Fenigstein, A. Scheier, M. F. & Buss, A. H.(1975).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Assessment and theory.
- Ingram, R. E.(1990). Self-focused attention in clinical disorder: Review and conceptual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07, 2, 156-176.
- Labelle, L. E. Campbell, T. S. & Carlson, L. E.(2010). Mindfulness-based reduction in oncology: Evaluating mindfulness and rumination as mediators of change in depressive symptoms. *Mindfulness*, 1, 28-40.
- Lyubomirsky, S. & Nolen-Hoeksema, S.(1994). Effects of self-focused rumination on negative thinking and interpersonal problem-solv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176-190.
- Martin, L. M. & Tesser, A.(1996). Some ruminative thoughts. In R. S. Wyer, Jr (ED.), *Ruminative thoughts*, 306-326.
- Morrow, R. F. & Nolen-Hoeksema, S.(1990). Effects of responses to depressive on the remediation of depressiv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519-527.
- Nolen-Hoeksema, S.(1991). Response to depression and their effects on the duration of depressive episod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 569-582.
- Nolen-Hoeksema, S.(2000). The role of rumination in depressive disorders and mixed anxiety/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9, 3, 504-511.
- Ramel, W. Goldin, P. R., Carmona, P. E. & McQuaid, J. R.(2004),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8, 4, 433-455.
- Scheier, M. F. & Carver, C. S.(1977). Self-focused attention and the experience of emotion, Attraction, repulsion, and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625-636.
- Silvia, P. J., Eichstaedt, J. & Phillips, A. G.(2005). Are rumination and reflection types of self-focused atten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8, 871-881.
- Sloan, D. M.(2005). It's all about me: Self-focused attention and depressed mood.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9, 3, 279-288.

- Smith, T. W. & Greenberg, J.(1981). Depression and self-focused attention. *Motivation and Emotion*, 5, 323-331.
- Teasdale, J. D. & Green, A. C.(2004). Ruminative self-focus and autobiographical memor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6, 8, 1745-1988.
- Trapnell, D. P. & Campbell, D. J.(1999). Private self-consciousness and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Distinguishing rumination from refle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 2, 284-304.
- Watkins, E. & Teasdale, J. D.(2004). Adaptive and maladaptive self-focus depression,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82, 1-8.
- Watkins, E. & Moulds, M. L.(2007). Reduced concreteness of rumination in depression: A pilot stud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 1386-1395.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Focused Attention and Depression: Mediating Effects of Psychological Acceptance and Rumination

Cho, Min-Hee · Hong, Hye-Young
Hugmomhugin · Myongji University

The study was self-focused attention divided into self-absorption and general self-focused attention, and confirmed mediated effects of psychological acceptance and rumination in relationship between self-focused attention and depression. For data analysis, the use of correlational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and model verification. The result were as follows. First, the study was suggest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elf-absorption, rumination and depression,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self-absorption and psychological acceptance. There was partial correlation between general self-focused attention and psychological acceptance.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general self-focused attention and rumination. But ther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etween general self-focused attention and depression. Second, analysing mediating effects of self-absorption, psychological acceptance and rumination to depression. Self-absorption and rumination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s, and psychological acceptance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s to depression. General self-focused attention was not significant effects to depression. Third, data analysing mediating effects of relation between self-absorption and depression partly mediated to psychological acceptance and rumination. Fourth, data analysing mediating effects of relation between general self-focused attention and depression mediated to psychological acceptance and rumination. Finally, the clinical implications and several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and directions for further study are discussed.

Key Words: self-focused attention, self-absorption, general self-focused attention, psychological acceptance, rumination, depression

용서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백서희 · 홍혜영*
명지대학교 · 명지대학교

본 연구는 용서, 정서지능, 대인관계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용서와 대인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 및 강원지역의 대학생 330명을 연구대상으로 용서, 정서지능, 대인관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통계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 매개효과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용서와 정서지능, 대인관계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든 변인이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둘째, 용서와 대인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용서와 대인관계에서 정서지능의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났다고, 정서지능의 모든 하위요인은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상담 장면에서 대인관계 갈등과 상처로 인해 심리적 부적응을 겪는 내담자들의 정서능력 함양의 중요성을 시사하며, 효과적인 상담개입전략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핵심어: 용서, 정서지능, 대인관계

* 교신저자: 홍혜영(hyhong@mju.ac.kr)

■ 게재 신청일: 2017년 1월 19일 ■ 최종 수정일: 2017년 2월 14일 ■ 게재 확정일: 2017년 2월 17일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 다양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개인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하고 발달하며 환경과 삶에 적응해 나간다. 대인관계는 인간 실존의 본질적이고 필연적인 요소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인간의 주요한 과업이라 할 수 있다.

원만한 대인관계는 사회구성원간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개인의 자아정체감과 성격을 형성하며 인격을 발달시키게 된다(김미숙, 2010). 그러나, 원만하지 않은 대인관계는 효율적이고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대인관계 결핍과 사회적으로 고립됨으로서 부적응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우울, 분노, 불안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되어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장석진, 2009). 대인관계로 인한 갈등과 상처는 개인의 생각과 감정 및 행동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개인 자신을 파괴하게 만들고, 대인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정서적 고통은 심해지고 개인의 성장과 발달은 저해되며, 부적응으로 인한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김광수, 2002; 문혜정, 2005; 정민, 장안나, 2009).

실제 임상 및 상담 장면에서 대인관계는 내담자가 가장 많이 호소하는 문제이며, 심리적인 문제의 대부분은 대인관계와 관련되어 있고(조윤경, 2003; Horowitz, 1986), 대인관계문제의 주요인은 정서적 요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ontemayor, 1994). 또한, 우울, 불안, 사회불안, 성격장애 등 다양한 정신병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lden & Philpips, 1990).

특히, 성인초기의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기의 가족이나 또래중심의 제한된 관계에서 벗어나 대인관계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로 많은 대인관계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갈등상황에 적응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는데 이로 인한 정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김형진, 한종철, 2004; 남상철, 유영달 2007; 한금선 등, 2007) 이를 효과적으로 개입하여 적응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이 시기는 건강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주요발달과업으로 대인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규명하여 대학생들의 심리적 문제해결과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연

구가 필요하다.

최근에 긍정심리학이 대두되면서 용서를 대인관계영역에서 중요한 한 분야로 다루고 있다(김지영, 권석만, 2009; 오영희, 2007; McCullough & Witvliet, 2002; Seligman & Csikszentmihalyi, 2000).

용서는 대인관계에서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는 중요한 능력으로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용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개인내적인 측면에서는 한 개인이 부당하게 입은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고, 대인관계적인 측면에서는 갈등과 상처로 인해 손상된 인간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동기를 부여해 줌으로써 관계를 회복시켜 사회적 상호작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기 때문이다(박종효, 2003; Coly & Enright, 1997; Enright & Fitzgibbons, 2000; McCullough, Paragment, & Thoresen, 2000; Murray, 2002). 이러한 용서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인해 대인관계영역에서 중요한 심리적 기제로 용서가 적용되고 있고, 경험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김광수, 이명경, 정태희, 정여주 및 우홍련, 2007; Enright & Fitzgibbons, 2000).

인간은 대인관계에서 상처를 입게 되면 분노와 적대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된다. 이러한 부정적 정서로 인해 수반되는 고통을 감소시키고, 긍정적 정서를 회복하기 위해 회피나 보복행동을 함으로써 보상을 얻으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개인의 내적 긴장감과 고통감을 일시적으로는 해소시킬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며, 분노와 적대감으로 인해 관계를 더 손상시키기 쉽고(Thompson et al, 2005), 보복행동을 통해 원한의 감정을 충분히 충족시켰음에도 사람들은 오히려 공허감을 느끼게 된다(권석만, 2008).

용서는 가해자에게 보복하거나 위해를 가하기보다는 오히려 가해자를 이해하고, 공감할 뿐 아니라 우호와 선의를 실천하는 이타적인 행동으로(Enright, 2001; McCullough, Pargament, & Thoresen, 2000) 자신의 정서적 유익을 얻는 것 외에 상처 받은 자아가 안정되어 부정적인 감정까지 통합할 수 있는 성숙한 자아가 되게 함으로써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한다. 또한, Agusburger(1981)는 용서는 용서받는 사람에게도 변화를 주어 용서를 통한 관계회복 및 대인관계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Gassin(1998)은 용서 빌기를 연구한 결과, 용서를 빌고 난후 화해촉진과 개인내적 성숙 등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용서는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자아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는 중요한 능력으로서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삶의 과정에서 직면하는 대인관계 갈등상황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능력 뿐 아니라 정서를 이해하는 정서적 능력이 요구된다. 정서는 개인의 인지과정에 영향을 주어 행동의 방향을 제공하며, 인지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한다(김창대, 1999; Gardner, 1993; Goleman, 1995; Lemerise & Arsenio, 2000). 또한, 인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고, 정서를 통해 개인은 사회규범과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행동적응 양식을 배우게 된다(유자경, 2005). 이처럼, 정서는 개인의 삶의 적응과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정서지능은 자신의 정서 경험과 정서가 개입된 사회적 교류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으로(Saarni, 1999)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서적 정보를 다루는 능력이 필요하고, 개인에 따라 이러한 능력에 차이가 있다는 가정 하에 제안된 개념이다(Salovey & Mayer, 1990). 정서지능은 유전, 환경적 조건이나 배경에 의해 형성된 개인적 성향이나 기질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교육에 의하여 발달이 가능한 능력으로(김광수, 하요상, 2006) 인간관계와 깊은 관련이 있다.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은 정서지능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자신과 타인이 느끼는 정서를 잘 알아차리고 이해하고 공감하여 적절하게 반응하게 함으로 바람직한 사회적 기능을 위해 필요하다. 정서조절 능력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능숙하게 조절하여 사회생활에 있어서 자기조절력과 적응력이 뛰어난 성공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하게 할 가능성이 높고, 정서조절 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대인관계에서 갈등이나 고립감 등 부정적 관계를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태경, 2006; 한유진, 2004). 또한, 타인정서인식 능력과 타인정서조절능력은 대인간 갈등해결전략에 영향력 있는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박향아, 2012). 이처럼 정서지능은 개인이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활용하고 조절하여 적응적 행동을 하게하며, 대인관계에서 타인과 효율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능력이다(Kunnanatt, 2004).

정서지능은 교육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 발달이 가능하며, 대인관계의 상호작용 속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정서적 경험을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된다. 특히, 부정적 정서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학습할 경우 정서지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김광수, 하요상 2006).

Enright(1995)와 김광수(2002)의 용서개념에 대한 연구와 Enright와 Fitzgibbons(2000)의 용서과정(process) 모형에 대한 연구에서 한 개인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심리행동특성들이 정서지능의 발달과 정적상관이 있고, Park와

Enright(1997), Huang과 Enright(2000)의 용서에 대한 인지도식이 발달한다는 연구결과에서도 타인의 입장이 되어볼 수 있는 역할채택능력, 사회적 조망수용능력, 공감능력이 증가하면서 이루어지는 용서의 발달이 정서지능의 발달과 정적상관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Enright(1992)는 용서를 통해 상처로 인한 고통과 불안 같은 부정적 정서의 고착에서 벗어나 자신의 왜곡된 사고를 교정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게 됨으로써 타인을 공감하고 동정심을 갖을 수 있는 정서적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김광수 등(2007)은 Enright(2000)와 Worthington (2005)의 용서과정모형을 통합하고, Salovey와 Mayer(1997)의 정서지능 모형과 관계모형을 설정하여 정서지능 향상을 위한 용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정서지능이 향상되는 결과를 보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용서가 정서적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정신건강과 적응을 돕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Denham, Neal, Wilson, Pickering, & Boyatz(2005)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하였다. 김광수 등(2007)의 연구에서 설정한 관계모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용서의 1단계에서 상처 및 부정적 정서에 대한 자각은 정서지능의 하위요인인 정서인식 및 표현을 촉진할 수 있고, 용서의 2단계에서 상처 및 분노에 대한 기존대처법의 효과성을 검토하여 바람직한 대처반응을 위한 정서정보 이용은 정서사고 촉진을 촉진할 수 있고, 용서의 3단계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인지를 재구조화하는 것은 감정이입과 정서활용을 촉진할 수 있으며, 용서의 4단계에서 용서를 통한 성숙한 반응과 건강한 대인관계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는 정서조절을 촉진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용서를 통해서 정서지능이 향상될 수 있고, 용서가 정서지능과 정적상관이 있으며,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용서와 정서지능은 순환적 형태로 서로의 발달을 촉진시킨다고 볼 수 있다.

용서와 정서지능 관련 선행연구로는 용서교육을 통한 정서지능 향상 효과검증 연구(김광수, 하요상, 2006; 김광수 등, 2007; 김미영, 2009; 이지민, 2012), 결혼 만족도 연구(Royal Kook Entezar, Nooraini Othman, Azlina Binti Mohd Kosnin, Afsaneh Ghanbari Panah, 2011), 부부의사소통 만족도 연구(Afsaneh Ghanbari Panah, Haji Mohamed Shariff & Royal Kook Entezar, 2011)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용서와 정서지능의 경험적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용서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지능이 매개하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아직까지는 많이 미진한 실정이다. 그리고, 임상장면에서 대인관계로 인한 심리적 부적응과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담자들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용서가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이들 간의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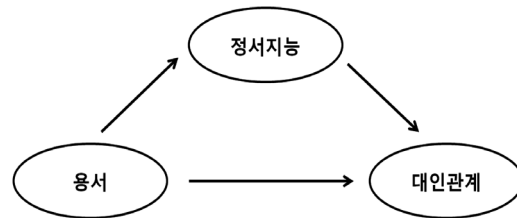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용서와 정서지능의 관계를 살펴보고, 용서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지능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검증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용서, 정서지능, 대인관계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용서와 대인관계에서 정서지능은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는가?



〈그림 1〉 연구모형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서울, 경기 및 강원지역 소재 총 7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415부중 누락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85부를 제외한 최종 330명의 자료가 결과분석에 사용되었다. 전체 유효표집 대상 330명 중 1학년 79명(23.9%), 2학년 106명(32.1%), 3학년 61명(18.5%), 4학년 84명(25.5%)으로 나타났다으며 성별은 여학생 213명(64.5%), 남학생 117명(35.5%)이었다.

2. 측정도구

가. 용서 척도

용서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Enright 등(1992)이 개발한 The Enright Forgiveness Inventory(EFI)를 박종효(2006)가 번안하여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 작업을 거친 EFI-K(박종효, 2006)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용서를 측정하며 각 20문항씩 총 60문항, 6점 Likert 척도로 평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용서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박종효(2006)의 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α 는 .98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용서 전체 Cronbach's α 는 .98,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인지적용서 .96, 정서적용서 .97, 행동적용서 .96 으로 나타났다.

나. 정서지능 척도

Salovey 와 Mayer(1997)의 정서지능 이론에 근거하여 문용린(1997)이 개발한 성인용 정서지능 검사(Adult Emotional Quotient: AEQT)를 사용하였다. 정서인식 및 표현, 감정이입, 정서사고촉진, 정서활용, 정서조절 등의 5개 하위요인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지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광희(2008)의 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α 는 .82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α 는 .88 이며,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정서인식 및 표현 .63 감정이입 .77, 정서사고촉진 .70, 정서활용 .69, 정서조절 .72로 나타났다.

다. 대인관계 척도

대인관계는 Schlin과 Guerney의 대인관계변화 척도(Relationship Change Scale)를 이형득과 문선모(1980)가 한국 실정에 맞게 번안하고, 김흥기(2006)가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만족감,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 이해성 등의 7개의 하위요인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좋음을 의미한다. 김명화(2010)의 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α 는 .88 이었고, 본 연구에서도 전체 Cronbach's α 는 .88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자료의 기술통계량 분석을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용서, 정서지능, 대인관계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용서와 대인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고,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변인 간 상관분석

용서, 정서지능, 대인관계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와 같다. 주요 변인들 간의 전체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용서는 정서지능, 대인관계와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용서는 정서지능 하위요인 정서인식 및 표현, 감정이입, 사고촉진, 정서활용, 정서조절과 $p < .001$ 수준에서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용서는 대인관계 하위요인 만족감,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개방성, 이해성과 $p < .001$ 수준에서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민감성은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정서지능은 대인관계 하위요인인 만족감,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 이해성과 $p < .001$ 수준에서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정서지능 하위요인 정서인식 및 표현, 감정이입, 정서사고촉진, 정서활용, 정서조절은 $p < .001$ 수준에서 대인관계와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각 변인들이 정규분포를 따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Curran, West와 Finch(1996)가 제시한 정규분포 기준(왜도 <2 , 첨도 <7)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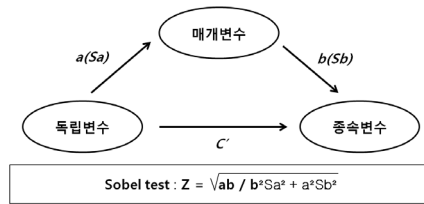
〈표 1〉 용서, 정서지능, 대인관계간 상관관계 결과

	F	F1	F2	F3	E	E1	E2	E3	E4	E5	R	R1	R2	R3	R4	R5	R6	R7
F(용서)	1																	
F1정서용서	.95***	1																
F2행동용서	.94***	.86***	1															
F3인지용서	.93***	.83***	.81***	1														
E정서지능	.52***	.50***	.48***	.51***	1													
E1정서인식 및 표현	.36***	.35***	.33***	.34***	.74***	1												
E2감정이입	.32***	.29***	.29***	.32***	.68***	.45***	1											
E3정서사고 촉진	.46***	.43***	.41***	.46***	.83***	.50***	.39***	1										
E4정서활용	.37***	.39***	.35***	.31***	.72***	.44***	.39***	.48***	1									
E5정서조절	.41***	.37***	.38***	.42***	.70***	.37***	.20***	.71***	.30***	1								
R대인관계	.40***	.40***	.38***	.35***	.68***	.66***	.44***	.53***	.45***	.42***	1							
R1만족감	.34***	.33***	.32***	.31***	.44***	.32***	.26***	.43***	.20***	.42***	.66***	1						
R2의사소통	.31***	.29***	.31***	.28***	.57***	.56***	.31***	.45***	.39***	.39***	.82***	.42***	1					
R3신뢰감	.23**	.22**	.22**	.22**	.30**	.19**	.39**	.23**	.19**	.07	.48***	.28***	.18**	1				
R4친근감	.37***	.37***	.34***	.34***	.54***	.45***	.47***	.42***	.30***	.33***	.74***	.46***	.55***	.40***	1			
R5민감성	.17**	.17**	.17**	.14**	.39***	.56***	.19**	.28***	.25***	.20***	.57***	.25***	.50***	.03	.33***	1		
R6개방서	.23***	.24***	.22***	.19***	.48***	.50***	.29***	.36**	.41***	.22***	.78***	.34***	.65***	.29***	.46***	.32***	1	
R7이해성	.29***	.31***	.26***	.24***	.55***	.66***	.26***	.42***	.37***	.36***	.76***	.43***	.59***	.18**	.48***	.59***	.47***	1
평균	3.76	3.52	3.69	4.08	3.38	3.40	3.61	3.41	3.30	3.16	3.55	3.50	3.54	3.53	3.71	3.71	3.39	3.61
표준편차	1.03	1.14	1.08	1.04	.38	.47	.57	.49	.55	.53	.43	.59	.62	.66	.59	.70	.60	.57
왜도	-.02	.02	.15	-.38	.31	.03	-.25	-.11	.20	-.23	.16	-.23	.08	-.42	-.16	-.44	.18	-.22
첨도	-.60	-.68	-.70	-.21	1.45	1.25	.32	.12	.24	.89	.65	.70	.07	.30	.41	.33	-.29	.64

※ * $p < .05$, ** $p < .01$, *** $p < .001$

2. 매개효과 검증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 검증을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Sobel 검증은 경로분석의 비표준화 된 경로계수를 통해 검증하게 되며 검증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2〉 Sobel 검증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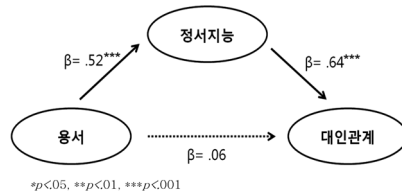
가. 용서와 대인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용서와 대인관계에서 정서지능의 회귀분석 결과, 첫 번째, 용서가 매개변인 정서지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beta = .52, p < .001$), 두 번째, 용서가 대인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 = .40, p < .001$). 세 번째, 용서와 매개변인 정서지능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독립 변인 용서의 β 계수 값이 2단계의 독립 변인 용서의 β 계수 값 보다 감소하였다(2단계 $\beta = .40 > 3$ 단계 $\beta = .06$). 그러나, 용서가 대인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정서지능은 대인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용서는 대인관계 R²의 변화량이 16%, 용서와 정서지능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46%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용서가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서지능이 완전 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검증을 한 결과, 유의미한($Z = 13.39, p < .001$)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용서와 대인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단계	경로	B	β	SE	t	R ²	F
1단계(독립 → 매개)	용서 → 정서지능	.20	.52	.02	11.15***	.28	124.32***
2단계(독립 → 종속)	용서→대인관계	.17	.40	.02	7.89***	.16	62.36***
3단계	용서 → 대인관계	.03	.06	.02	1.32	.46	138.33***
(독립, 매개 → 종속)	정서지능 → 대인관계	.72	.64	.05	13.42***		

※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3〉 용서와 대인관계에서 정서지능의 완전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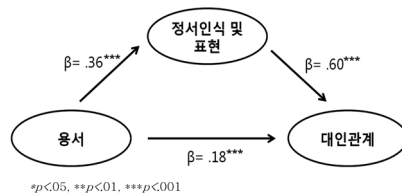
나. 용서와 대인관계에서 정서인식 및 표현의 매개효과

용서와 대인관계에서 정서인식 및 표현의 회귀분석 결과, 첫 번째, 용서가 매개변인 정서인식 및 표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beta = .36, p < .001$), 두 번째, 용서가 대인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 = .40, p < .001$). 세 번째, 용서와 매개변인 정서인식 및 표현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p < .001$ 유의한 수준에서 독립 변인 용서의 β 계수 값이 2단계의 독립 변인 용서의 β 계수 값 보다 감소하였다(2단계 $\beta = .40 > 3$ 단계 $\beta = .18$). 또한, 용서는 대인관계 R²의 변화량이 16%, 용서와 정서인식 및 표현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47%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용서가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서인식 및 표현이 부분 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매개효과와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검증을 한 결과, 유의미한($Z = 11.66, p < .001$)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용서와 대인관계에서 정서인식 및 표현의 매개효과

단계	경로	B	β	SE	t	R ²	F
1단계(독립 → 매개)	용서 → 정서인식표현	.16	.36	.02	7.02***	.13	49.22***
2단계(독립 → 종속)	용서 → 대인관계	.17	.40	.02	7.90***	.16	62.36***
3단계 (독립, 매개 → 종속)	용서 → 대인관계	.08	.18	.02	4.27***	.47	144.11***
	정서인식표현 → 대인관계	.55	.60	.04	13.78***		

※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4〉 용서와 대인관계에서 정서인식 및 표현의 부분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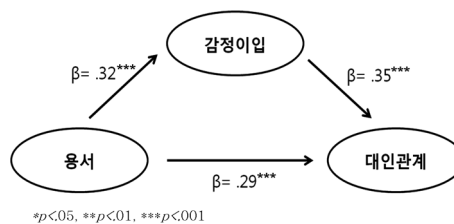
다. 용서와 대인관계에서 감정이입의 매개효과

용서와 대인관계에서 감정이입의 회귀분석 결과, 첫 번째, 용서가 매개변인 감정이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beta = .32, p < .001$), 두 번째, 용서가 종속변인 대인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 = .40, p < .001$). 세 번째, 용서와 매개변인 감정이입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p < .001$ 유의한 수준에서 독립 변인 용서의 β 계수 값이 2단계의 독립 변인 용서의 β 계수 값 보다 감소하였다(2단계 $\beta = .40 > 3$ 단계 $\beta = .29$). 또한, 용서는 대인관계 R²의 변화량이 16%, 용서와 감정이입을 동시에 투입 했을 때 27%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용서가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감정이입이 부분 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매개효과와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검증을 한 결과, 유의미한($Z = 8.10, p < .001$)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용서와 대인관계에서 감정이입의 매개효과

단계	경로	B	β	SE	t	R ²	F
1단계(독립 → 매개)	용서 → 감정이입	.18	.32	.03	25.67***	.10	37.65***
2단계(독립 → 종속)	용서 → 대인관계	.17	.40	.02	7.90***	.16	62.36***
3단계 (독립, 매개 → 종속)	용서 → 대인관계 감정이입 → 대인관계	.02 .26	.29 .35	.02 .04	5.77*** 6.95***	.27	59.82***

※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5〉 용서와 대인관계에서 감정이입의 부분매개효과

라. 용서와 대인관계에서 정서사고촉진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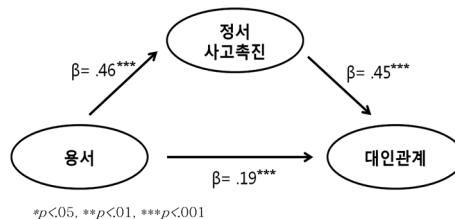
용서와 대인관계에서 정서 사고촉진의 회귀분석 결과, 첫 번째, 용서가 매개변인인 정서 사고촉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beta = .46, p < .001$), 두 번째, 용서가 종속변인 대

인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 = .40, p < .001$). 세 번째, 용서와 매개변인 정서 사고 촉진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p < .001$ 유의한 수준에서 독립 변인 용서의 β 계수 값이 2 단계의 독립 변인 용서의 β 계수 값 보다 감소하였다(2단계 $\beta = .40 > 3$ 단계 $\beta = .19$). 또한, 용서는 대인관계 R2의 변화량이 16%, 용서와 정서사고촉진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32%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용서가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서 사고촉진이 부분 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검증을 한 결과, 유의미한($Z = 10.87, p < .001$)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용서와 대인관계에서 정서사고촉진의 매개효과

단계	경로	B	β	SE	t	R ²	F
1단계(독립 → 매개)	용서 → 정서사고촉진	.22	.46	.02	9.45***	.21	89.21***
2단계(독립 → 종속)	용서 → 대인관계	.17	.40	.02	7.90***	.16	62.36***
3단계 (독립, 매개 → 종속)	용서 → 대인관계	.08	.19	.02	3.76***	.32	75.28***
	정서사고촉진 → 대인관계	.39	.45	.05	8.62***		

※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6〉 용서와 대인관계에서 정서사고촉진의 부분매개효과

마. 용서와 대인관계에서 정서활용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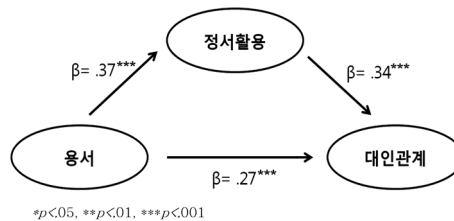
용서와 대인관계에서 정서 활용의 회귀분석 결과, 첫 번째, 용서가 매개변인인 정서 활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beta = .37, p < .001$), 두 번째, 용서가 종속변인 대인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 = .40, p < .001$). 세 번째, 용서와 매개변인 정서활용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p < .001$ 유의한 수준에서 독립 변인 용서의 β 계수 값이 2 단계의 독립 변인 용서의 β 계수 값 보다 감소하였다(2단계 $\beta = .40 > 3$ 단계 $\beta = .27$). 또한, 용서는 대인관계 R2의 변화량이 16%, 용서와 정서활용을 동시에 투입 했을 때 26%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용서가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서활용이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검증을 한 결과, 유의미한($Z=8.76, p<.001$)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용서와 대인관계에서 정서활용의 매개효과

단계	경로	B	β	SE	t	R ²	F
1단계(독립 → 매개)	용서 → 정서활용	.20	.37	.11	23.67***	.14	51.95***
2단계(독립 → 종속)	용서 → 대인관계	.17	.40	.02	7.90***	.16	62.36***
3단계 (독립, 매개 → 종속)	용서 → 대인관계	.11	.27	.02	5.33***	.26	58.09***
	정서활용 → 대인관계	.27	.34	.04	6.77***		

※ * $p<.05$, ** $p<.01$, *** $p<.001$



〈그림 7〉 용서와 대인관계에서 정서활용의 부분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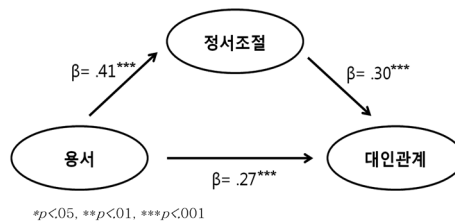
바. 용서와 대인관계에서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용서와 대인관계에서 정서조절의 회귀분석 결과, 첫 번째, 용서가 매개변인 정서조절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beta=.41, p<.001$), 두 번째, 용서가 종속변인 대인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40, p<.001$). 세 번째, 용서와 매개변인 정서조절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p<.001$ 유의한 수준에서 독립 변인 용서의 β 계수 값이 2단계의 독립 변인 용서의 β 계수 값 보다 감소하였다(2단계 $\beta=.40 > 3$ 단계 $\beta=.27$). 또한, 용서는 대인관계 R²의 변화량이 16%, 용서와 정서조절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24%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용서가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서조절이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검증을 한 결과, 유의미한($Z=8.51, p<.001$)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용서와 대인관계에서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단계	경로	B	β	SE	t	R ²	F
1단계(독립 → 매개)	용서 → 정서조절	.21	.41	.03	8.15***	.17	66.46***
2단계(독립 → 종속)	용서 → 대인관계	.17	.40	.02	7.90***	.16	62.36***
3단계 (독립, 매개 → 종속)	용서 → 대인관계	.12	.27	.02	5.20***	.24	50.35***
	정서조절 → 대인관계	.24	.30	.04	5.69***		

※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8〉 용서와 대인관계에서 정서조절의 부분매개효과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용서와 정서지능, 대인관계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정서지능이 용서와 대인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용서, 정서지능, 대인관계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용서와 정서지능은 유의미한 정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김광수, 하요상(2006)의 연구에서 용서의 과정이 인간이 경험하는 다양한 정서 중에서 특히, 부정적 정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인지적 능력인 정서지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는 이를 입증한 결과로서 용서과정의 경험이 정서능력개발에 유의하고, 정서지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김광수, 하요상; 2006), 용서를 통해 정서적 능력이 향상될 수 있음(Denham et al, 2005; Enright 1992; Fitzgibbons 1986; Smedes 2004)을 확인 하였다. 또한, Enright(2000)와 Worthington(2005)의 용서과정모형과 Salovey와 Mayer(1997)의 정서지능모형으로 관계모형을 제시하여 용서의 과정을 통해 정서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김광수 등(2007)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결과는 실제 상담 장

면에서 Enright의 용서과정모형을 단계별로 적용하여 내담자의 정서능력 향상을 도모하여 용서를 내면화하고 실생활에 적용케 하는 상담개입전략으로 유용함을 시사하고 있다.

용서도 대인관계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고 있다(김정남, 이은영, 2012; 김동욱, 2008; 옥인숙, 2011; 이은경, 2010; 장선숙, 김향숙, 홍상환 2005). 이는 용서가 개인내적인 측면에서는 용서하는 개인에게는 대인관계 갈등으로 인해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미움, 분노 등과 같은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어 건강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고 대인관계측면에서는 갈등과 상처로 인해 손상된 관계를 회복시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동기를 부여해 주므로 대인관계에서 용서는 중요한 심리적 기제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박종효, 2003; Agusbarger, 1981; Coly & Enright 1997; Enright & Fitzgibbons 2000; McCullough, Paragment & Thoresen, 2000; Murray, 2002).

정서지능도 대인관계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수미, 조정자 및 김혜리(2008)의 연구에서 보고한 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정서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대인관계 문제를 최소화하고(Salovey & Mayer, 1997), 사회적인 측면에서 적응적인 대인관계를 보이며 대인관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심혜숙, 왕정희, 2001; Salovey & Mayer, 1997; Schutte et al, 2001). 한편, 정서지능이 낮을 경우, 자신의 정서에 대한 이해나 조절에 어려움이 있어 문제행동을 일으키게 되고, 사회적 기술 결여로 인해 대인관계를 적절하게 맺지 못하며, 충동적이고 공격적 행동이 나타났다(김명희, 2008; 문용린, 1997). 이는 정서지능과 대인관계가 서로 관련이 크며, 건강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적응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정서능력발달과 향상을 위한 노력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둘째, 용서와 대인관계에서 정서지능과 정서지능의 하위요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정서지능은 용서와 대인관계에서 완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용서가 정서적 능력을 향상 시킨다는 Enright(1992)와 Denham 등(2005)의 선행연구를 입증하는 결과이다. 이는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한 적응적인 대처전략으로 용서를 적용함으로써 상처로 인한 우울, 불안, 분노 등의 부정적 정서가 완화되고, 정서가 안정됨을 경험하게 되는 정서적 효과로 인해서 정서지능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용서가 대인관계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보다 정서지능을 매개로하여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을 확인 하였다. 따라서, 임상장면에서 효과적인 상담개입방법으로 정서능력함양을 위한 대안 중에서 용서를 제안하고, 용서의 과정을 단계별로 적용하여 정서지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정서지능의 하위요인인 정서인식 및 표현은 용서와 대인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용서의 과정에서 자신의 상처와 부정적 정서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김광수 등(2007)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이다. 그리고, 정서인식 능력이 높은 사람은 자신과 타인이 느끼는 감정이나 정서를 잘 인식하고 이해하며, 정서표현능력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정서를 적절하게 표현함으로써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한다는 선행연구(김태경 2006; 김광수, 이시화, 2009)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잘 알아차리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사람일수록 대인간 문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적 상황에서 적응적인 사회적 기능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타인과 성공적인 상호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 정서인식 및 표현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감정이입도 용서와 대인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김광수 등(2007)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이는 용서의 과정에서 인지적 재구조화를 통해 정서적 동일시와 인지적 통찰을 통해서 자신의 왜곡된 사고와 역기능성을 변화시키고, 타인의 입장과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관점수용능력이 발달됨에 따라 감정이입능력이 향상 되면서 대인관계에서 적절한 기능을 하게 하는 것이다(Enright, 1992). 또한, 용서를 통해 부정적 정서와 심리적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정서적 안녕감을 회복시켜주고 신체 및 정신건강에 해로운 반응을 억제시키며 유익한 정서반응을 촉진시킨다는 선행연구(김광수, 2002; 박종효, 2006; McCullough, Root, Tabak, & Witvilit, 2009)에 의해 본 연구결과가 지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서사고촉진도 용서와 대인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김광수, 하요상, 2006; 김미영, 2009)와 일치하는 결과로 이는 용서의 과정에서 대인관계 갈등과 상처로 인하여 기존에 부정적으로 대처했던 대처반응을 바람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의 정서정보를 이용하게 되면서 인지과정에 영향을 주는 정서사고촉진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문제해결을 위한 대처방식이 어떠했는지 탐색 해보고 내담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정서활용도 용서와 대인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김미영(2009)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서 정서활용 능력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정서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변화

시킴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나 인간관계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으며, 정서활용 능력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정서를 일이나 인간관계에 잘 활용하지 못하여 빈번하게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사회적 부적응 상태에 빠지거나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alovey & Mayer, 1997). 이는 대인관계에 건강하고 적응적인 방식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용서의 과정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인지를 재구조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정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지적인 개입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정서조절도 용서와 대인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조절 능력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정서뿐만 아니라 타인의 정서도 능숙하게 조절하여 대인관계에서 갈등이나 고립감 등 부정적 관계를 덜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김태경, 2006; 한유진, 2004)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는 용서의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정서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여 객관적, 반성적으로 숙고함으로써 정서를 조절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상처로 인한 얽매임과 정서적 고착상태에서 벗어나 내면의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대인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담 장면에서 대인관계 갈등과 상처로 인해 심리적 문제와 부적응을 호소하는 내담자들 중에서 용서 적용이 가능한 내담자들에게 효과적인 상담개입 전략으로 용서를 제안하고, Enright의 용서심리과정 모형을 단계별로 적용함으로써 내담자의 상처 치유와 회복을 돕고, 이와 더불어 정서지능 향상도모와 대인관계 갈등과 상처에 바람직하고 적응적 대처를 촉진케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상담 장면에서 대인관계로 인해 심리적 부적응을 호소하는 내담자들의 정서능력 함양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고, 용서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연구로써 용서와 대인관계에서 정서지능이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내 그 경로를 입증한 결과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용서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검증을 처음 시도한 연구로서 용서와 대인관계에서 정서지능이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인관계에서 갈등과 상처로 인해 심리적 부적응을 호소하는 내담자들의 정서능력 함양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시사하고, 내담자들의 정서능력의 수준을 고려하여 비(非)용서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과 부적응을 겪는 내담자들에게 적절한 치료적 개입과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금까지의 용서 연구는 용서를 통해 정서적 효과나 신체적 및 심리적 건강과의 관계 및 용서의 효과 검증 등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면 본 연구는 용서가 정서적 능력을 향상시

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통해서 용서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용서와 대인관계에서 정서지능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본 연구로 용서가 정서지능을 향상시키고, 용서에 의해 향상된 정서지능이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에서 정서지능이 용서와 대인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임을 확인한 연구이다. 그러나, 역으로 정서지능이 용서를 가능하게 하고 정서지능에 의해 가능한 용서가 대인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가정도 해볼 수 있다. 왜냐하면, 용서가 먼저인지 정서지능이 먼저인지를 생각해 볼 때 발달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정서지능이 먼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용서는 정서적으로 성숙한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매우 성숙한 수준의 정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정서지능과 대인관계의 상관이 용서와 대인관계의 상관보다 높은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검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연구대상자의 용서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질적 연구의 병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참여 대상자들은 서울, 경기도, 강원도지역의 대학생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표집을 확장하고,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용서유형에 따른 용서수준차이 여부를 고려하여 살펴보는 연구도 필요하겠다.

참고 문헌

- 권석만(2008). 긍정심리학. 서울: 학지사.
- 김광수(2002). 용서연구의 동향과 과제. 교육심리연구, 16(2), 113-131.
- 김광수, 하요상(2006). 용서상담교육이 아동의 용서수준과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학회지, 20(4), 900-930.
- 김광수, 이명경, 정태희, 정여주, 우홍련(2007). 초등학생 정서지능 향상을 위한 정서교육 일 모형으로서 용서교육 프로그램 개발. 초등교육연구, 20(3), 297-323.
- 김광수, 이시화(2009). 정서지능 교육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갈등해결전략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 초등교육연구, 20(1), 171-191.
- 김동욱(2008). 용서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희(2009). 조기 음악교육 경험이 대학생의 정서지능, 다중지능 및 창의성 발달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숙(2010). 시설아동의 퇴소 후 대인관계 형성을 위한 나눔 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성결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영(2009). 용서상담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용서수준 및 분노조절과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남, 이은영(2012). 집단 용서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6학년의 공격성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한국모자보건학회지, 16(1), 32-43.
- 김지영, 권석만(2009). 용서특질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한국 심리학회지: 일반, 28, 239-261.
- 김창대(1999). 정서교육. 한국교육문제론. 청남 정원식 박사 고회기념 논저.
- 김태경(2006). 아동의 정서지능과 또래 및 친구관계.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형진, 한중철(2004). 대학생의 우울 취약성과 자의식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 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2), 277-294.
- 남상철, 유영달(2007). 부모와 자녀의 양육태도 지각 및 대학생의 자아분화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2(2), 51-75.
- 문용린(1997). EQ가 높으면 성공이 보인다. 서울: 글이랑.

- 문혜정(2005). 성인애착 및 자의식유형에 따른 대인관계문제 수준의 차이 연구. 학생생활 연구(숙명여자대학교 학생생활지도연구소), 27, 5-38.
- 박종효(2003). 용서와 건강의 관련성 탐색. 한국 심리학회지: 건강, 8(2), 301-321.
- 박종효(2006). 용서 심리이론과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개관연구. 인간발달연구, 13(1), 117-134.
- 박향아(2012). 성, 연령 및 정서지능에 따른 유아의 갈등해결전략에 따른 연구. 미래유아 교육학회지, 19(2), 41-59.
- 심혜숙, 왕정희(2001). 초등학생의 정서지능과 사회적 능력 및 대인문제해결력과의 관계. 한국 심리학회지, 13(1), 163-175.
- 오영희(2007). 청소년의 부모-자녀 갈등경험과 심리적 부적응과의 관계: 용서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교육심리연구, 21(3), 645-663.
- 옥인숙(2011). 부모의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또래관계 및 공격성과의 관계: 용서의 조절효과.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논문.
- 유자경(2005). 정서지능, 대인관계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수미, 조정자, 김혜리(2009). 대학생의 정서지능이 대인관계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6(3), 131-147.
- 이은경(2010). 영화를 활용한 용서교육프로그램이 기독교청소년의 용서,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지민(2012). 독서치료를 활용한 용서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용서수준과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석진(2009) 애착이론에 근거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 및 능력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10(4), 2031-2054.
- 장선숙, 김향숙, 홍상황(2005). 초등학생용 교우관계 용서프로그램의 효과검증. 한국 심리학회지 학교, 2(2), 199-220.
- 정민, 장안나(2009). 대학생의 자아개념과 대인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0(2), 669-681.
- 조운경(2003). 한국인의 나의식-우리의식과 개별성-관계성, 심리사회적 성숙도 및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 한국 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1), 91-109.
- 한금선, 박은숙, 송준아, 김근면, 진종희, 강현철(2007). 대학생의 대인관계 애착 유형, 정서조절, 스트레스 증상간의 관계. 정신간호학회지, 16(2), 198-204.

- 한유진(2004).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성 및 또래관계의 질. *한국아동학회*, 26(4), 85-100.
- Afsaneh Ghanbari Panah, Haji Mohamed Shariff, Royal Kook Entezar.(2011). The accuraracy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forgiveness in predicting the degree of satisfaction in marital communic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and Counselling*, 3(6), 106-110.
- Alden, L. E., & Phillips, N.(1990). An interpersonal analysis of social anxiety and depress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 499-513.
- Augsburger(1981). *Caring enough to confront* Augsburger, David W, Ventura, Calif.: Regal Books, c1981, California.
- Coly, D. L., & Enright, R. D.(1997). Forgiveness intervention with post-abortion m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 1042-1046.
- Denham, S. A., Neal, K., Wilson, B. J., Pickering, S., & Boyatzis, C. J.(2005). *Emotional deveopment and forgiveness in children: Emerging evidence*. In Jr. E. L. Worthington (ed), *Handbook of forgiveness* (pp. 127-142). New York: Routledge.
- Enright, R. D., Gassin, E. A., & Wu, C.(1992). Forgiveness: A development view. *Journal of Moral Education*, 2, 99-114.
- Enright, R. D.(1995).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forgiveness. Paper presented at the National Conference on Forgiveness. Madison, WI, March.
- Enright, R. D & Fitzgibbons, R. P.(2000). *Helping clients forgive: An empirical guide for resolving anger and restoring hope*.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Enright, R. D.(2001). *Forgiveness is a Choice*.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Fitzgibbons, R. P.(1986). The cognitive and emotional uses of forgiveness in the treatment of anger. *Psychotherapy*, 23, 629-633.
- Gardner, H.(1993). *Multiple Intelligence. The theory in practice*. New York: Basic Books.
- Gassin, E. A.(1998). Receiving forgiveness as moral education: a theoretical analysis and initial empirical investigation. *Journal of Moral Education*, 27(1), 71-87.

- Goleman, D.(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ntam Books.
- Horowitz, L. M. & Vitkus, J.(1986). The interpersonal basis of psychiatric symptoms. *Clinical Psychology Review*, 6, 443-469.
- Huang, S. T. & Enright, R. D.(2000). Forgiveness and anger-related emotions in Taiwan: Implications for therapy. *Psychotherapy*, 37, 71-79.
- Kunnanatt, J. T.(2004). Emotional Intelligence: The New Science of Interpersonal Effectiveness. *Human resource development quarterly*, 15(4), 489-496.
- Lemerise, E. A., & Arsenio, W. F.(2000). An integrated model of emotion processes and cognition in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Child Development*, 71(1), 107-118.
- McCullough, M. E., & Pargament, K. I., & Thoresen, C. E.(2000). *The psychology of forgiveness: History, conceptual issue, and overview*. In M. E. McCullough, K. I. Pargament, & C. E. Thoresen (Eds.), *Forgiveness: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pp. 1-14). New York: Guilford.
- McCullough, M. E., & Witvliet, C. V. O.(2002). *The psychology of forgiveness*. In C. R. Snyder & Lopez, S. J.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pp.446-458).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cCullough, M. E., Root, L. M., Tabak, B. A., & Witvliet, C. V. O.(2009). Forgiveness In C. R. Snyder, & S. J. Lopez, (Eds.), *Oxford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2nd ed.). pp.427-436.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ontemayor, R.(1994). *The Study of Personal Relationships during Adolescence*. In R. Montemayor, G. Adanms & T. Gullotta(Eds.), *Personal Relationships during Adolescence*, CA: Sage
- Murray, R. J.(2002). The therapeutic use of forgiveness in healing intergenerational pain. *Counseling and Values*, 46(3), 188-198.
- Park, Y & Enright, R. D.(1997). The development of forgiveness in the context of adolescent friendship conflict in Korea. *Journal of adolescence*, 20, 393-402.
- Royal Kook Entezar, Nooraini Othman, Azlina Binti Mohd Kosnin, Afsaneh Ghanbari Panah.(2011). Relation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Forgiveness with Marital Satisfa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Fundamental Psychology & Social Science*, 1(2), 21-25.

- Saarni, C.(1999). *The development of emotional competenc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Salovey, P., & Mayer, J. D.(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nality*, 84, pp.322-330.
- Salovey, P., & Mayer, J. D.(1997).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In P. Salovey & D. J. Sluyter(eds), *Emotional development and intelligence : Educational implication*. New York: Basic Books.
- Seligman, M. E. P., & Csikszetmihalyi, M.(2000). Positive psychology: An introduction. *American Psychologist*, 55(1), 5-14.
- Smedes, L. B.(2004). 용서의 기술 [Forgive & forget]. 배용준 역, 서울: 규장문화사
- Schutte, S. Nicola, Malouff, M. John, Bobik, Chad, Coston D. Tracid, Greeson Cyndy, Jedicka, Christina, Rhodes, Emily, & Wendorf, Greta(2001). Emo-tional intelligence and interpersonal relation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1, 523-536.
- Thompson, L. Y., Snyder, C. R., Hoffman, L., Micheal, S. T., Rasmussen, H. N.,Billings, L. S., Heinze, L., Neufeld, J. E., Shorey, H. S., Roberts, J. C., & Roberts, D. E.(2005). Disposition forgiveness of self, other, and situ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73, 313-359.
- Worthington, E. L., Jr. (Ed.).(2005). *Handbook of Forgiveness*. New York: Routledge.

〈Abstract〉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the effects of Forgivenes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Baek, Seo-Hee · Hong, Hye-Young
Myongji University · Myongj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forgiveness, emotional intelligenc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verify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in forgivenes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For this study, 330 university students from Seoul, Gyeonggi Province and Gangwon Province collected data on forgiveness, emotional intelligenc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For analysis of data, SPSS 18.0 programs were used to conduct technological statistics analysis, correlations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and Sobel test of mediating effect. The findings show: First, an analysis of correlations between forgiveness, emotional intelligenc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dicates that all the variables had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s. Second, the result of verifying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in forgivenes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dicates that emotional intelligence in forgivenes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howed completely mediated effects, and that all the subordinate factors of emotional intelligence showed a partially mediated effects. Such findings suggest the importance of cultivating emotional capacity of the clients who are suffering from psychological maladjustments due to interpersonal conflicts and emotional injuries in actual counseling situations. They are meaningful in that they could provide basic data for effective counseling intervention. Lastly, the current study discussed its limitations and proposed subsequent studies in this discipline.

Key Words: Forgiveness, Emotional Intellige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별첨 1〉

통합치료연구 연구 윤리 관련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통합치료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과 관련된 연구 활동의 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을 검증하여 연구 활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자의 정직성) ① 연구자는 본인이 수행하는 연구과정 전반에 걸쳐 모든 과정을 정직하게 수행해야 한다. 연구과정은 아이디어의 도출, 연구디자인의 설계, 연구 참여자에 대한 보호, 결과의 분석, 연구 참여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이 포함된다.

- ② 연구자는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표절, 사기, 조작, 위조 및 변조, 중복 게재 등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해야 한다.
- ③ 본 향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④ 연구자는 연구 수행 시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기관과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해야 한다.

제3조 (연구자의 의무) ① 연구자는 연구의 제안, 과정, 및 결과보고 등의 연구전반에 걸친 활동을 정직하고 진실 되게 수행해야 한다.

- ② 연구자는 연구활동 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판단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 한다.
- ③ 연구자는 타인의 연구 활동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존중한다.

제4조 (연구 부정행위) 본 학회의 학회지는 다음과 같은 연구 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으며, 학회지 발간 이후 적발 시에는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①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 결과물을 기록하고 보고하는 행위
- ② 변조: 연구결과물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③ 표절: 본인이나 타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물을 원저자 승인 없이 인용, 또는 참조 없이 도용 하는 행위
- ④ 중복게재: 1) 연구자는 국내·외 타 학회와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거나 발표 예정인 연구물을 본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수 없다.
2) 연구자는 국내·외 타 학회와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거나 발표 예정인 연구물을 본 학회의 학회지에 게재신청할 수 없다.

제5조 (연구 참여자 보호) 연구자는 각자의 연구 활동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정신적, 신체적 위해가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연구 시행 전 반드시 연구 참여자 또는 법적 대리인에게 연구 절차와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동의를 받는다.

제6조 (연구윤리위원회)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학회장과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학회장이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은 상임이사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④ 위원이 심의대상자아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당 심의 건에 대한 위원자격을 상실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⑥ 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후임위원을 위촉하여 그 임기를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연구윤리심의규정) 윤리위원회는 아래의 사항들을 심의하고 결정하며, 그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 ①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 심의
- ② 본 학회의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사항 심의
- ③ 연구의 진실성 검증, 검증 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④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와 심의대상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 ⑤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

제8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①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는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하여야 한다.

- ②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와 결과는 학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 부정행위 심의 대상자를 출석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 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④ 조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확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해당 연구 결과물에 대한 취소 또는 수정 요구
 - 2) 해당 연구자의 논문 투고 3년간 금지
 - 3) 해당 연구과제의 관련자 교체
 - 4) 적정 기간 회원자격 상실
 - 5) 제명
 - 6) 법률기관에의 고발 등조사 결과 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심의대상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별첨 2〉

투고규정

가. 투고논문의 범위는 언어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 및 심리상담적 이론과 접근을 기반으로 한 통합적 시각의 연구 및 관련 주제를 다룬 국문 또는 영문논문으로서 투고 자격은 회원으로 한다. 단, 논문 등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여타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나. 투고논문 제출은 e-mail을 통해 파일을 전송한다. 원고작성 시 투고규정에서 정한 “논문 작성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다. 원고분량은 논문작성지침에 의거한 규격용지 기준 국문원고 15매, 영문원고 20매로 제한한다.

라.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제1저자를 저자표기 가장 앞부분에, 나머지 연결저자는 논문집필의 기여도에 따라 순서대로 표기한다.

마. 투고 시 원고 겉면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주소, e-mail을 포함한 연락처를 명기하며, 제출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바. 투고논문은 다른 간행물, 논문집 등에 발표되지 않은 창작물이어야 하며, 제출된 논문은 『통합치료연구』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게재불가판정 논문에 한해서는 일체의 심사내용을 통보하지 않는다.

사. 투고시 심사비 8만원(급행논문 심사비 12만원), 게재 확정시 10만원(15쪽 기준)을 납부하며 15쪽(본 학술지의 편집기준)을 초과한 경우 인쇄쪽당 1만원씩 추가 납부한다.

아. 본 학술지 원고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은 접수가 불가하다.

자. 『통합치료연구』는 연2회 발간(2월 25일, 8월 25일)하고 있다.

〈별첨 3〉

논문 작성 요령

[통합치료연구] 투고 논문 작성 양식

1. 원고 작성 개요

가. 작성 도구: 한글 3.0 이상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나. 논문원고 용지

(1) 용지 종류: 사용자 정의(190×260)

(2) 용지 여백: 위쪽 18, 아래쪽 20, 왼쪽 26, 오른쪽 26, 머리말 10, 꼬리말 10, 제본 0

다. 문단 모양: 줄간격 170

라. 글자 모양

	글꼴	크기	장평	자간	문단정렬	비고
제목	신명조	18p	100	0	가운데	진하게
저자명	중고딕	10p	100	0	오른쪽	1줄 띄고
소속	신명조	9p	100	0	오른쪽	
요약	중고딕	9p	95	-5	양쪽정렬	1줄 띄고 줄간격 140 좌우여백: 4
본문	신명조	11p	95	-5	양쪽정렬	
그림	중고딕	10p	95	-5	하단 가운데	출처 9p 중고딕 그 외 설명 9p 신명조
표	중고딕	10p	95	-5	왼쪽상단	출처 9p 중고딕 그 외 설명 9p 신명조
참고문헌 제목	견명조	14p	95	-5	가운데	
참고문헌 내용	신명조	9p	95	-5	양쪽정렬	
영문초록 제목	신명조	14p	95	-5	가운데	진하게
영문초록 내용	신명조	9p	95	-5	양쪽정렬	
부록제목	중고딕	10p	95	-5	왼쪽	진하게
부록내용	신명조	10p	95	-5	양쪽정렬	

마. 제목의 번호 붙임

- 1단계: I. II. III. …………… (2줄 띄고, 14p, 견명조, 가운데)
- 2단계: 1. 2. 3. …………… (1줄 띄고 3칸에서 시작, 11p, 중고딕, 진하게)
- 3단계: 가. 나. 다. …………… (1줄 띄고 3칸에서 시작, 11p, 신명조, 진하게)
- 4단계: (1) (2) (3) …………… (1줄 띄고 4칸에서 시작, 11p, 중고딕)
- 5단계: ㄱ. ㄴ. ㄷ. …………… (4칸에서 시작, 9p, 신명조)
- 6단계: (ㄱ) (ㄴ) (ㄷ) …………… (4칸에서 시작, 9p, 신명조)

바. 들여쓰기

문단의 첫 문장은 3칸에서 시작, 문장과 문장 사이는 1칸으로 하고, 문단과 문단 사이는 1줄 띄지 않는다(“참고문헌”의 들여쓰기는 9칸에서 시작함).

사. 용어의 사용

- (1)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적 혼동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용어가 처음 나왔을 때 () 속에 원어나 한자를 쓴다.
- (2) 세 개 또는 그 이상의 관련성 있는 단어를 연속하여 나열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단어 바로 앞에 심표 없이 “그리고”, “와(과)”, “및”, “혹은” 등을 삽입한다.

2. 인용 사항

본문에 인용문을 삽입하는 경우에는 단어 및 구두점 등의 모든 사항이 인용되는 원문과 일치되어야 하며, 그 인용부분의 길이에 따라 다음 규정을 지킨다.

가. 인용내용이 짧은(1-2행) 경우 예는 본문 속에 인용부호(“ ”)를 사용하여 기술하며, 인용내용의 끝에 인용출처(저자, 출판년도)를 밝힌다. 한 문장 내에서 내용을 축약하는 경우에는 반 칸을 띄운 후에 세 개의 공간점“…”을 사용한다.

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홍길동, 2003)

나. 인용내용이 긴(3행 이상) 경우 예는 본문에서 따로 떼어 기술한다. 이 경우에는, 인용 부분의 아래와 위를 본문에서 한 줄씩 띄고 좌우로 각각 3글자씩 들여 쓴다. 인용문의 출처는 “저자(출판년도)”를 먼저 밝히고 인용문을 적거나, 인용문 뒤에 “저자(출판년도)”를 표기한다.

예: 이승환(2005)은 언어병리학이 다학문적 학문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하였다. 특수교육학, 심리학, 컴퓨터공학 등의 전문인들과 협력해야 하고, 나아가 의학의 여러 분야의 전문인들과 팀을 구성해야 할 장애유형도 많다. 그래서 상호 의뢰가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한다.

3. 각주(脚註, footnote) 와 후주(後註, endnote)

가. 각주의 사용은 금한다.

나. 그 대신, 본문에 표시하기 어려운 보충적 내용이나 설명에 한하여 후주의 사용을 허용한다. 후주를 표시하는 위치는 본문 내 해당되는 곳에 반 괄호를 붙인 어깨 숫자로 일련번호를 표시하고, 그 내용은 본문의 가장 뒤, 참고문헌 바로 앞에 기술한다.

4. 본문 내의 인용문헌

가. 직접 인용의 경우: 인용부호(“ ”)를 달고 기술하며, 인용처(저자 및 발행년도)를 표기한다.

예 1: 김영옥(2003)에 의하면 “.....”

예 2: 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김영옥, 2003)

나. 간접 인용의 경우: “저자”와 “출판년도”를 아래 예들과 같이 명기하되, 출판년도 표시의 괄호 앞 어절이 한글일 경우에는 괄호를 붙여 쓰고 (단, “참고문헌”에서는 반 칸을 띄어 쓴다), 영어인 경우에는 반 칸 띄고 쓴다.

예 1: 이 이론에 대하여 고도홍(2003)은.....

예 2: 이 이론에 대하여 Pinker(1975)는.....

예 3: 한 연구(고도홍, 1995)에 의하면.....

예 4: 최근의 연구(고도홍, 1995; Boone, 1990)에 의하면.....

다. 저자가 다수인 경우

(1) 저자가 3인 이상 5인까지일 경우, 최종 저자 앞에 “및” 또는 “와/과”로 표기한다. 또 같은 문헌이 반복 인용될 때에는 한국인인 제 1저자의 성과 이름 뒤에 “등/외”를 표기하고, 외국인인 제 1저자의 성 뒤에 et al.을 표기한다.

예: 김수진, 윤미선 및 김정미(2002)는... 첫 인용

김수진 등(2002)은... 반복 인용

Boone, Hodson & Paden(1995)은... 첫 인용

Boone et al.(1995)은... 반복인용

(2) 6인 이상이면 제1저자만 기재하고 “000 외”나 “0000 et al.”등으로 표시한다.

5. 참고문헌 작성법

가. 참고문헌은 논문의 말미에 한, 중, 일, 기타 동양, 서양 문헌 순으로 열거한다. 서양 문헌작성의 경우 여기에서 규정한 형식 이외의 것은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양식에 따른다.

나. 저자는 저자수와 관계없이 모두 표시한다. 영문 이름의 경우에는 성을 먼저 쓰고, 이름은 첫 글자만(예: Kim, H. K.) 표시한다.

다. 동일한 저자가 같은 해에 낸 다수의 논문을 참고했을 경우에는 출판년도 뒤에 영문 소문자를 써서 구별한다.

예: 2005a,

라. 단행본(연수회 교재, 발표회 교재 및 검사도구 포함)의 경우

(1) 국문: 저자 또는 편집자(출판년도). 책제목. 출판사 소재지: 출판사.

예 1: 이승환(2005). 유창성장애. 서울: 시그마프레스.

예 2: 심현섭·신문자·이은주(2004). 파라다이스-유창성검사

(Paradise-Fluency Assessment, P-FA). 서울: 파라다이스복지재단.

(2) 영문: 저자 또는 편집자(출판년도). 책제목(이탤릭체). 출판사 소재지: 출판사.

예: Van Riper, C. & Erickson, R. L.(1996). *Speech correction: An introduction to speech pathology and audiology*. Needham Heights, MA: A Simon & Schuster Co.

마. 단행본 속의 논문 또는 단원(chapter)의 경우

(1) 국문: 저자(출판년도). 논문[단원]명. 편집자[기관]명(편). 단행본명. 발행지: 발행처.

예: 김영태(2000). 조음음운장애 치료를 위한 임상이론.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편). 말·언어임상 전문요원교육: 조음음운장애 및 실어증 치료기법의 임상적 적용. 서울: 한학문화.

(2) 영문: 위와 동일하나 출처인 단행본명을 이탤릭체로 표기

아래 예와 같이 단행본저자의 이름을 표기하되, 단행본 저자가 1명인 경우에는 “(Ed.)”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Eds.)”로 표기.

예: Beeson, P. & Hillis, A.(2001).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of written words*. In R. Chapey(Ed.), *Language intervention strategies in aphasia and related neurogenic communication disorders*(4th ed.). Baltimore, MD: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3) 단행본이 재판(再版)이상: 단행본명 뒤의 ()안에 “3판” 혹은 “3rd ed.” 등으로 표기.

바. 정기간행물(학술지) 속의 논문의 경우

(1) 국문: 저자(출판년도). 논문명. 논문수록 학술지명, 권(호) 번호, 페이지.

예: 장빛나, 김수지(2009). 타악기를 이용한 음악 활동이 유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8(3), 213-226.

(2) 영문: 저자(출판년도). 논문제목. 논문수록 학술지명(이탤릭체), 권(호), 페이지.

예: Kim, S. J.(2010). Music therapy protocol development to enhance training for stroke patients with dysphagia. *Journal of Music Therapy*, 57(2), 102-119.

사. 학위논문의 경우

(1) 국문: 저자(출판년도). 논문제목. 학위수여대학. 학위명.

예: 김민정(2004). 아동용 한국어 조음검사의 개발. 연세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 협동과정 박사학위논문.

(2) 영문: 저자(출판년도). 논문명(이탤릭체). 학위명, 학교명 및 학교소재지.

단, 석사논문은 “master’s thesis”로, 박사논문은 “doctoral dissertation”으로 표기한다.

예: Sim, H. S.(1996). Kinematic analysis of syllable repetition and sound prolongation in children who stutte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owa, Iowa City.

아. 번역서의 경우

- (1) 원저자명(출판년도). 번역서명[원전의 제목을 알고 있는 경우에 표기]. (역자명).
 번역서의 출판지: 번역서의 출판사명.
 예 1: 정옥란(역)(1993). 음성과 음성치료. 대구: 배영출판사.
 예 2: 이승복, 한기선(공역)(2000). 의사소통 과학과 장애: 과학에서 임상실습까지. 서울: 시그마프레스.

자. 연수회, 특강 또는 학술대회 자료의 경우

- (1) 저자명(발표된 년도). 발표제목. 자료명. 발표장소.
 예 1: 윤미선, 이봉원(2005). 한국어 어휘 특성에 따른 단어인식 검사에 대하여.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전북대학교, 전주.
 예 2: Pae, S. & Yoon, H. J.(2005). Reading miscue analysis of the Korean second graders. Proceedings of the American Speech-Language-Hearing Association(ASHA) annual conference. San Diego, CA.

차. 기관이 저자인 경우

- (1) 국문: 기관명을 저자로 명기(발행년도). 단행본명. 발행도시명: 기관명에 준하여 “동부”, “동 협회”, “동 학회” 등으로 표기.
 예: 문화관광부(1999). 교과서의 어휘 분석연구-초등학교 교과서를 대상으로. 서울: 동부.
 (2) 영문: 단행본명을 이탤릭체로 표기. 발행처가 저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발행 도시명: 을 적은 후에 “Author”라고 표기.
 예: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2001).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5th ed.). Washington, DC: Author.

6. 표, 그림 및 부록

- 가. 표, 그림 및 부록에는 일련번호를 각각 붙이되, < >를 사용한다. 표와 그림은 본문 안에 삽입하고 부록은 참고문헌 뒤에 삽입한다.
 예: <표 1>, <그림 1>

나. 표 및 부록의 제목은 상단 왼쪽에, 그림의 제목은 하단 중앙에 붙인다.

다. 표, 그림 및 부록을 다른 문헌에서 인용하였을 때, 표와 부록의 경우에는 하단 왼쪽에, 그림의 경우에는 하단 중앙 제목 밑에 출처를 명기한다.

라. 부호를 사용할 때의 글씨체 및 띄어쓰기는 다음과 같다.

- (1) p, F, t는 신명조체의 이탤릭체로 쓴다. 단, M, N, SD는 신명조체의 정자체로 한다.
- (2) 부호 사이는 반 칸 띄어 쓴다(예: $p < .001$, $F(1,129) = 2.71$, $t = 4.52$).
- (3) *는 윗 첨자의 형태로 통계표 안의 t값과 표 밑의 p값을 제시할 때 쓴다.
(예: *t, * $p < .05$)

마. 유의확률을 나타내는 p값은 표 하단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기재한다. (예: $p = .003$)

7. 초록

가. 한글 논문의 경우

- (1) 한글초록: 10줄 이내의 한 문단으로 된 한글초록(연구목적, 방법, 결과 등 포함)을 별지에 작성하여 논문 맨 앞에 첨부한다.
- (2) 영문초록: 10줄 내외의 영문초록을 별지에 작성하여 논문 맨 뒤에 첨부한다.
- (3) 핵심어: 3-5개의 핵심어를 한글초록과 영문초록 밑에 쓴다.

나. 영문 논문의 경우

- (1) 영문초록: 10줄 이내의 한 문단으로 된 영문초록(연구목적, 방법, 결과 등 포함)을 별지에 작성하여 논문 맨 앞에 첨부한다.
- (2) 한글초록: 1쪽 이내의 한글초록(한글제목, 한글이름, 한글소속 포함)을 별지에 작성하여 논문 맨 뒤에 첨부한다.
- (3) Key Words: 3-5개의 핵심어를 영문초록과 한글초록 밑에 쓴다.

〈별첨 4〉

한국통합치료학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통합치료학회(The Korean Society of Interdisciplinary Therapy)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음악, 언어, 놀이, 가족, 상담심리, 예술심리의 이론과 실재를 연구함으로써 한국 치료학의 발전 및 회원의 학문적 성장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 (위치) 본 학회의 사무소는 당해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업) 본 학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연구 및 발표
2. 심리적, 신체적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및 연구 활동
3. 학술지 발간
4. 학회발전을 위한 교육
5. 국내외 학회와의 유대
6. 회원의 권익보호 및 친목
7.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심리치료, 놀이치료, 언어치료, 음악치료, 가족치료, 예술심리치료 또는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구분) 본 학회의 회원은 준회원, 정회원, 평생회원, 일반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준회원은 5조에 관련된 전공의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 경력 1년 이상인 자 또는 관련 전공 석사과정 중인 자로 본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학회가 제시한 일정한 구비요건을 충족하며,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 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2. 정회원은 5조에 관련된 전공의 석사학위 소유자로서 본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학회가 제시한 일정한 구비요건을 충족하며,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 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3. 평생회원은 5조에 관련된 전공의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본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학회가 제시한 일정한 구비요건을 충족하며,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 하여 자격관리 위원회의 심사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4. 기관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관으로서 정회원이 운영 재직하는 기관 및 치료전문기관으로서 본 회의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기관으로 한다.

제7조 (입회 절차) 본 학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 원서 제출과 함께 입회비를 납부하고 회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의 의결에 참여할 권리
2. 임원의 피선거권을 가질 권리
3.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권리
4. 본 학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
5. 본 학회의 각종 출판물을 받을 권리
6. 기타 학회에서 인정한 권리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 참석 및 회칙을 준수할 의무
2. 본 학회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
3. 본 학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4.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10조 (회원의 탈퇴) 본 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의 제명)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으로써 학회의 회장이 제명한다.

제12조 (회원의 자격 정지) 2년 이상(당해 연도 제외) 회비가 체납된 회원은 체납회비가 완납될 때까지 회원 자격 및 권리가 정지된다.

제3장 임 원

제13조 (임 원)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총무: 1명
4. 감사: 2명
5. 학술위원장: 1명
6. 학제 간 연구위원장: 1명
7. 편집위원장: 1명
8. 국제교류위원장: 1명
9. 윤리위원장: 1명
10. 홍보위원장: 1명

제14조 (임원의 임기)

1. 각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기타 임원의 결원이 발생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한다.
3.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임원의 선출)

1. 회장과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과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무기명투표로 하여 출석 회원의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2.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16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총회에서 위임한 업무를 관장하며 학회를 책임 운영한다.
4. 각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된 직무를 수행한다.

제17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총회에 보고하는 일

제4장 기 구

제18조 (기구의 종류)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1. 총 회
2. 운영위원회
3. 상임위원회

제19조 (총회)

1. 총회는 학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 1)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 및 예·결산의 보고
 - 4) 규약 및 제 규정에서 총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 5)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는 주요안건
2. 총회는 그 기능의 일부를 총회 의결을 통하여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학술위원장, 학제 간 연구위원장, 편집위원장, 국제교류위원장, 윤리위원장, 홍보위원장으로 구성 한다.
2.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행한다.
 - 1) 회장과 감사를 총회에 추천한다.
 - 2) 준회원, 정회원, 평생회원, 기관회원의 자격을 심사 및 승인한다.
 - 3) 각종 규정 및 지도감독을 한다.
 - 4) 중요사업을 계획, 심의한다.
 - 5) 정관의 개정을 총회에 건의한다.
 - 6) 본 학회의 운영을 총괄 조정한다.
 - 7) 기타 중요사항을 결정한다.
3.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4. 기타 운영위원회의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5. 제 20조의 모든 사항은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단,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정족수에 포함한다.

제21조 (상임위원회)

1. 편집위원회
 - 1)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학술지 발간 및 학술발표, 세미나 등 주관 및 교육
2. 국제교류위원회
 - 1)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국제 교류 및 협력 주관 및 관리
3. 학제 간 연구 위원회
 - 1)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음악, 언어, 놀이, 가족, 상담심리 등의 다양한 치료분야간의 통합치료모델 연구
4. 홍보위원회
 - 1)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대외협력 및 홍보

5. 학술위원회

- 1)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학술발표, 세미나, 교육특강 등 주관 및 교육

제5장 회 의

제22조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갖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총회에서 투표권은 정회원, 평생회원에게 있다.

제23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정회원, 평생회원의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최한다.
※ 단,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정족수에 포함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 정회원, 평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4조 (총회의 특례)

1. 회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운영위원회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5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자신과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6장 재 정

제26조 (재정)

1. 본 학회의 재정은 회비, 학회운영 수익, 및 기타 찬조비 등으로 충당한다.
2. 회원 자격별 회비(입회비, 연회비, 및 평생회비 등)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본 학회 회원으로서 2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의 자격은 회비 납부시 까지 정지되며, 미납회비(당해 연도를 포함한 3년분 미납 연회비)의 납부와 동시에 회원 자격이 회복된다.
4. 평생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연회비가 면제된다.
5. 본 학회 재정의 모든 입출금은 본 학회가 보유한 은행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다.

제27조 (회계년도) 학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본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2. 본 정관은 2015년 3월 23일부로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 선우현(명지대학교)
편집위원 : 김은연(명지대학교)
 최예린(명지대학교)
 손보영(선문대학교)
 Dr. Felicity Baker(The University of Melbourne)
 이상진(평택대학교)
 박춘성(상지영서대학교)
 박정환(제주대학교)
 서근원(대구카톨릭대학교)

통합치료연구 제8권 제2호

2017년 2월 25일 인쇄
2017년 2월 25일 발행

발행인 : 박은선 (한국통합치료학회장)
 (우) 03674
 서울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경상관 4626호
 Tel: 02-300-0880 / E-mail: ksit365@naver.com

인쇄처 : 동 문 사

이 학회지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통합치료학회의 사전 서면 허락없이 복제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